

# 管山城 關聯遺蹟의 現狀과 保存方向

車勇杰\* · 趙順欽\*\*

- 
- I. 머리말
  - II. 옥천지역의 산성
  - III. 옥천지역 산성과 보루 수습 유물의 양상
  - IV. 옛 교통로와 산성 및 보루의 배치관계
  - V. 옥천 지역 관산성 관련 유적의 보존 방안
  - VI. 맺음말
- 

## I. 머리말

신라와 백제 두 나라 사이에 서기 554년에 벌어진 관산성(管山城), 혹은 구천(狗川), 또는 고리산(古利山)에서 벌어진 것으로 기록에 전하는 전투에 대한 흔적을 찾는 일은 과거의 국제성을 가진 역사적 사건의 전말(顛末)을 알아내고, 그 현장의 발자취에 대한 보존과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옥천군(沃川郡)으로부터 학술용역을 의뢰 받아 2002년 7월부터 이듬해까지 실시된 바 있다.

이 계획의 조사 대상은 ① 옥천읍 가화리 삼성산(관산성), ② 군서면 월전리, 동평리(동평산성), ③ 군북면 이백리 갯골과 환산(고리산), ④ 백제 성왕 격전지 및 이동 진로 등, ⑤ 나·제 격전지 및 지명과 관련된 사료 등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나,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원 연구소는 보다 확대된 지역의 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이전에 있었던 이 지역에 대한 조사는 필자가 대학 재학시절 자주 지표조사를 하였던 곳이며, 이어지는 옥천 남부의 현 영동군 지역과 북부인 현 대전광역시 지역의 여러 유적들도 조사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다 진전된 내용을 보태려 조사에 임하였다. 이후 지금 조사되고 있는 옥천 읍내 금구리의 신라와 관련된 고분유적을 포함한 조사의 진전이 있었으므로, 기존 알려진 내용을 일부나마 보완할 수 있다.

삼국시대 신라(新羅, BC 57→AD 676)와 백제(百濟, BC18→AD 660)가 그 후기에 이르러 국운(國運)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가름한 전쟁터로서 역사적 의의와 유서 깊은 장소로 알려진 관산성(管山城)과 관련된 전적지(戰蹟地)로 알려진 조사에서는 ① 옥천읍·군북면·군

---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 (재) 중원문화재연구원 연구원

서면·안내면 등과 그 주변 지역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전적지에 대한 성터와 옛 길 등에 대한 학술적 조사를 통하여 보존과 정비가 필요한 문화유적의 선정. ② 현재까지 연구된 여러 학설을 종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실존 유적의 확인. ③ 기본 역사자료와 보조 역사자료 및 현장 조사 자료를 포함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축제 개발의 가능성 타진. ④ 역사적 사건을 추체험(追體驗) 할 수 있는 청소년 탐방로(探訪路)의 설정에 필요한 학술적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한 목적이 있었다.

## II. 옥천지역의 산성

삼국시대의 전적지를 알기 위해서는 지명의 변천뿐만 아니라 현재 실존하는 유적으로서의 성터와 고분군, 각종 생산시설과 교통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가 첫 작업이 된다. 특히 성터와 보루 유적은 많은 노동력과 경제력이 투입된 것으로서 유구의 잔존상태가 예상 외로 지하에 매장되고, 기와와 토기를 비롯한 많은 예기치 못한 유물이 매장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가장 중요한 실증 자료로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고고학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은 지표조사 이후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며, 해석상의 의견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등의 한계도 가지고 있다.

### 1. 마성산성(馬城山城)

마성산성은 군서면 금산리와 옥천읍 대천리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509.5m의 마성산(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93 보은)에 위치한 석축 산성이다.

북쪽으로는 300~400m의 산능선이 이어지면서 거의 봉우리마다 동평산성(東坪山城)·용봉산성(龍峰山城)·삼성산성(三城山城:月田里山城)이 위치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사목재<sup>1)</sup>를 지나 산맥은 450~500m의 연봉(連峰)으로 이어져 서남쪽으로는 서대산(西大山, 904.1m), 동남쪽으로는 금산고개—지내재—매봉—대성산(大聖山, 704.8m)을 거쳐 울치(栗峙)를 사이에 두고 마니산(摩尼山, 639.8m)으로 동향한다. 울치는 옛 양산현(陽山縣, 助比川城)으로 통하는 중요 통로이다.

마성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서쪽으로는 군서면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들판 건너로는 서쪽으로 성치산성(城峙山城)·매봉산보루(梅峰山堡壘)·곤륜산보루(昆崙山堡壘) 등의 석장산 줄기에 해당한 곳에 위치한 산성과 보루들이 바로 건너 바라다 보이며, 동쪽으로는 옥천읍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산성은 해발 509.5m의 산봉우리 정상부를 둘러싸 산봉형(蒜峯形)으로 축조된 석축된 산성이다. 둘레는 약 216m로 성의 전체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이다. 현재 북쪽 회절부에 3개, 동쪽

1) 옥천읍 남쪽에서 서남쪽으로 군서면 금산리를 오가는 지름길이며, 마성산성과 남쪽의 장용산 사이의 고개로 금산리에서 서남쪽으로 새말재, 혹은 작은 사목을 넘으면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성당리가 된다. 서대산 북쪽에 나 있는 통로로서 옥천—추부—진산 사이의 直路이다

회절부에 1개의 돌탑이 등산객에 의해 쌓여져 있다. 석축은 곳곳에 노출된 석영반암(石英斑岩)의 암반 노두 위에 바로 석축을 마련하였는데, 지금은 거의 무너져 내렸으며, 북쪽 회절부와 남동쪽의 석축 일부가 남아 있다.

지금 남아 있는 석축 성벽의 높이는 1~2.5m 정도로 정확한 성벽의 높이는 알 수 없으나, 주변에 무너져 내린 석재와 지형으로 보아 5~6m의 높이가 되었었다고 추정된다.

성벽은 암반에서 채석한 돌을 약간 치석(治石)하여 수평 눈 줄을 맞추어가며 쌓아 올렸으며, 북동쪽과 북서쪽의 성벽은 내외겹축(內外夾築)으로, 남동쪽의 성벽은 내탁(內托)으로 석축하였으며, 특히 남동쪽 성벽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암반 노두의 중간부에 석축하므로써 성벽의 높이가 자연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마성산성은 성의 동쪽과 서쪽에 각각 1개의 작은 망대(望臺)를 가지고 있다. 서쪽 망대는 남서쪽의 회절부 밖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가로와 세로가 약 8×8m의 크기로 석축하였던 성돌이 흩어져 있다. 이곳에서는 군서면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마성산성은 남쪽으로 495.6m, 495.3m, 447.5m의 봉우리로 이어져, 산성이 있는 이곳에서는 사목재가 잘 보이지 않는 지형이다. 이러한 지형을 극복하고 사목재를 공제(控制)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 동쪽 망대이다. 동쪽 망대는 마성산성에서 남쪽으로 두 번째 봉우리(495.3m)의 남쪽 사면에 위치한 것으로 마성산성의 동쪽에 해당한다. 이곳에서는 동쪽으로 옥천읍 일대는 물론이고, 사목재로 통하는 사목골이 훤히 내려다보인다. 동서 15m, 남북 8m의 크기이다.

그림 1 마성산성 잔존성벽 모습



현재 산성으로 통하는 길은 사목재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과 금산리의 안터골로 오르는 길, 그리고 동평산성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 있으나, 문터로 보이는 곳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석축의 산성에서 작은 망대형의 보루(堡壘)를 동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산성으로, 서남쪽과 동쪽의 망대는 작은 보루로서 마성산성의 기능에서 이들이 합쳐져서 기능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크고 작은 성보(城堡)가 하나의 조(組, Set)를 형성한 것은 백제 성터에서는 모자(母子)관계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자세한 기록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으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19. 城址. 內南面 大川里, 郡西面金山里. 聖珠峰, 國有林. 城名不詳. 沃川驛의 南方 約1里 峯

筋에 있는 石築의 山城인데 周圍約 160間 城壁 거의 崩壞됨.<sup>2)</sup>

이라는 것이 있어서 외측의 작은 보루에 대한 것이 결여되었으나, 산성이 있는 봉우리가 성주봉(聖珠峯)이라 불린 사실과 당시에 이미 붕괴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2. 동평산성(東坪山城)

동평산성은 마성산성(馬城山城)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군서면 동평리(東坪里)와 옥천읍 마암리(馬岩里)의 망지미 마을과 경계를 이루는 해발 405.2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82)의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해발 약 400m 정도의 봉우리로 이어져 용봉산성(龍峯山城)과 삼성산성(三城山城)이 같은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점차 높아져 509.5m 봉우리의 마성산성(馬城山城)과 더 남쪽으로 사목재가 있다.

이 산성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에서는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20. 城址. 內南面 兩水里, 郡西面 東坪里. 馬巖, 國有林. 城名不詳. 沃川驛의 西南方 約半里 峯筋에 있는 石築의 山城인데 橢圓形을 이룸. 周圍 約170間 城壁 거의 崩壞됨.<sup>3)</sup>

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이 산성에서는 동쪽으로는 옥천읍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이며, 동남쪽으로 멀리 이원면을 지나 소백산맥의 준령들이 바라다 보인다. 서쪽으로는 군서면의 들판을 지나 성치산성(城峙山城)·매봉산보루(梅峯山堡壘)·곤륜산보루(昆崙山堡壘)가 위치하고 있으며, 군서면 일대를 내려다보는 전망이 좋다.

북서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식장산 산줄기와 그 산줄기의 동쪽에 있는 노고산성(老姑山城)·숫고개산성이 월전리의 서화천 연변을 건너 마주보이며, 북쪽으로 환산(環山)의 줄기가 바라다 보인다. 현행 1:5,000 지형도에서는 동평산성의 위치를 군서면 동평리와 금산리의 경계를 이루는 391.2m의 봉우리 위에 표기하고 있으나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산성은 이보다 북쪽의 해발 405.2m의 산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2 동평산성 잔존성벽 모습

2)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沃川郡.

3)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沃川郡.



산성은 해발 405.2m 봉우리의 9부 능선을 에워싼 산봉형(蒜峯形)의 석축 산성이다. 성의 전체적인 형태는 남북으로 긴 장타원형이며, 전체 둘레는 성의 외곽을 따라 약 247m로서 동쪽의 일부 급경사 지역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성벽이 잘 남아 있다. 성벽의 내측으로는 약 5m의 폭으로 성내를 한바퀴 돌 수 있는 내환도(內還道)가 있으며, 남쪽 성벽 내측으로 비교적 넓은 평탄지가 있어 이곳에 민묘 1기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잔존하고 있는 성벽의 높이는 약 1.5~2m이며, 무너져 내려 드러난 속 채움 돌로 보아 성벽의 높이는 약 4~5m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인다.

성벽의 기단부는 별도의 보축(補築) 없이 암반을 약간 편평하게 다듬은 다음 바로 성벽을 쌓아 올렸으며, 성돌은 주변의 기반암(석영반암과 반상흑운모화강암)을 그대로 떼어내 장방형으로 치석하여 수평 눈줄 맞추기 하여 쌓아 올렸다. 일부의 성벽 구간은 기단부로부터 약간씩 들여쌓기 하여 쌓아올리다가 수직에 가깝게 쌓아 올린 부분도 있다.

성내는 현재 많은 낙엽이 쌓여 있어 유물을 수습할 수 없으며, 무너진 성벽의 일부에서 토기 조각과 기와 조각이 가끔씩 드러나 있을 뿐이다.

현재 산성으로 오르는 길은 동평리 당골 계곡의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과 용봉산성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 마성산성에서 능선으로 타고 오르는 길이 있으나 성문터로 보여지는 곳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마도 현문식(懸門式)의 성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 3. 용봉산성(龍峰山城)

용봉산성은 동평산성(東坪山城)에서 북동쪽으로 뺀 능선을 따라가 해발 437m, 432.5m (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82)의 용봉(龍峰)에 위치하고 있다. 동평산성과는 직선으로 약 55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으로부터 더 북쪽으로 삼성산성과는 직선거리 약 1,600m쯤 떨어져 있다.

산성이 위치한 산줄기는 동서로 옥천읍과 군서면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동쪽으로 옥천읍뿐만 아니라 멀리 이원면 경계까지 훤히 내려다보이며, 서쪽으로는 군서면 일대와 서화천 건너편의 성치산성(城峙山城)·매봉산보루(梅峰山堡壘)·곤륜산보루(昆崙山堡壘)가 마주 바라다 보인다.

북서쪽으로는 대전광역시와의 경계를 이루는 식장산 산줄기와, 그 산줄기의 동쪽에 있는

노고산성(老姑山城)·숫고개산성이 월전리의 서화천 연변을 건너 마주보이며, 북쪽으로 환산(環山)의 줄기가 바다로 보인다. 남쪽으로 동평산성과 마성산성이 보이며, 높은 산줄기로 막힌 듯이 보인다.



[사진 3] 용봉산성 잔존성벽 및 용봉산성에서 바라본 구진베루 모습

용봉산성은 사방으로 급경사를 이루는 용봉의 정상부를 둘러싼 마안봉형(馬鞍峯形)의 석축산성이며,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장타원형으로 누에고치의 형태이다. 성의 전체 둘레는 약 250m이며, 성벽은 내타으로 쌓아올려 대부분 무너진 상태로 남서쪽 사면의 암반 위 석축이 일부 남아 있을 뿐이다.

잔존한 성벽의 높이는 약 1.5m가 남아 있으며, 성돌은 석영반암의 기반암에서 떼어낸 장방형의 석재를 외면만 살짝 치석하여, 수평 눈 줄 맞추기 하여 쌓아 올렸으나, 성벽은 동평산성처럼 정교하지 못하다. 서쪽 봉우리의 끝자락에 등산객에 의해 쌓여진 듯한 돌담이 1기가 있으며, 이곳과 정상부에서는 북쪽으로 서화천의 곡류인 월전리 구진베루가 바로 아래에 훤히 내려다보인다.

현재 성내로 통행하는 곳은 3곳으로 능선으로 통하는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 하동리에서 오르는 길이 있으나, 문터의 형적을 남기고 있는 곳은 없다.

#### 4. 삼성산성(三城山城：月田里山城)

옥천읍 양수리(兩水里)와 군서면 월전리(月田里)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약 303m의 재건산 정상부에 위치한 산성이다(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1-13 -21-073·083 보은).

이 산성에 대한 축성 시기나 연혁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世宗實錄』地理志에서

城隍堂山石城 在郡西四里 周回三百九十六步 險阻 城內有井一 遇旱則竭 有軍倉<sup>4)</sup>

이라 하여 성황당산석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비롯한 조선시대 간행된 각종 지리지에는 산성에 대한 언급이 없고, 다만 산천(山川)에서 삼성산(三城山, 三聖山)은 군의 서쪽 5리에 있으며, 고성(古城)

4) 『世宗實錄』地理志, 沃川郡.

의 유지(遺址)가 있다<sup>5)</sup>고만 기록하고 있다. 19세기 후반 김정호의 『大東地志』에서는 이 산성을 삼성산 고성으로 표기하고,

三聖山古城 一云西山城 周二千一百四十一尺 井一<sup>6)</sup>

이라 하여, 이 산성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성과 혼동하여 같은 성으로 기록하고 있다.

삼성산성은 이와 같이 성황당산석성(城隍堂山石城) 또는 삼성산고성(三聖山古城)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월전리산성(月田里山城)으로 많이 불려진다. 일제강점기의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22. 城址. 內南面 兩水里, 郡西面 月田里. 月田里, 國有林. 城名不詳. 西山城과 相對한 下水亭部落의 北方 約200間에 있는 山城인데 周圍 約580間. 南方及東方一部는 거의 峯筋을 利用하여 片平巖으로 築造하고, 東方一部及北西部는 山腹을 돌려 土壘의 外壘와 石築의 內壘를 이루는데, 共히 崩壞됨.<sup>7)</sup>

이라 파악되어 있다. 옥천읍에서 금산·진산·논산지방을 지나 백제의 옛 수도인 부여로 통하는 37번 국도가 이 성의 서북쪽 아래를 통과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서울 부산을 잇는 4번 국도, 경부선 철도 및 경부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주변에는 진터벌, 말무덤 고개 및 백제 성왕의 전사지로 전해지는 구진베루 등이 있어 신라와 백제의 치열한 격전장으로 알려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성의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에는 용봉산성(龍峯山城)·동평산성(東坪山城)·마성산성(馬城山城)이 남아 있으며, 북동쪽으로 삼양리토성과 서산성을 마주한다. 동쪽으로는 옥천읍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교통의 요지인 삼거리를 사이에 두고 북쪽의 환산(環山), 서북쪽의 식장산(食藏山), 서남쪽의 서대산(西大山)이 멀리 바라다 보인다.

삼성산성은 하나의 산봉우리를 감싸고 있는 산봉형(蒜峯形) 산성으로 석축의 둘레는 약 500m로 남서—북동 방향으로 긴 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석축은 대부분 붕괴되었다.

성의 남쪽 끝에 망대(望臺)로 보이는 석루지(石壘址)가 남아 있고, 중앙에 장대지(將臺址)로 추정되는 대지가 있다. 이곳에서는 옥천군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며, 주변의 산성들 특히 삼양리토성과 서산성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이다.

성의 북쪽으로 남북 15m, 동서 6m의 평평한 건물터가 있으며, 그 남쪽으로 우물터가 있어 옛 기록의 군창과 우물자리로 짐작된다. 서북쪽 성벽은 내외겹축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모두 무너졌으며, 남쪽 성벽은 약 5m 정도 너비로 내환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외벽은 모두

5) 『新增東國輿地勝覽』, 沃川郡 山川.

『輿地圖書』, 沃川郡 山川.

『忠清道邑誌』, 沃川郡 山川.

『忠清北道各郡邑誌』, 沃川郡 山川.

6) 『大東地志』, 沃川, 城池.

7)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沃川郡.

붕괴되어 마치 토성의 붕괴된 잔존 토루처럼 보이고 있다.

성으로 통하는 길은 남서쪽과 남동쪽 능선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으나, 문터의 형적을 확연하게 남기지는 않고 있다. 서북쪽 군서면 방향의 사면에 토성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토루 흔적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석축 성벽과의 연계관계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였다.



[사진 4] 삼성산성 성벽 및 산성에서 옥천읍내 모습

## 5. 삼양리토성(三陽里土城)

옥천읍 삼양리(三陽里)의 해발 142m 야산을 감싸고 있는 토성이다.(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1-13-21-073 보은) 옥천읍내의 북쪽 낮은 구릉지대에 위치하며 고문헌기록은 전혀 없고, 산성의 존재가 1970년대에 학계에 처음 소개되었다. 성의 북쪽 부분은 경부고속도로로 인하여 일부 지형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고속도로 건너편에도 삼양리 쪽의 성벽과 연결되는 성벽의 일부가 남아 있다.

성의 서쪽과 남쪽으로 경부간을 잇는 4번 국도와 경부선 철도, 대전과 보은으로 통하는 37번 국도가 위치하고 있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다.

산성의 북쪽으로 서산성(西山城)이 바로 마주 바라다 보이며, 서북쪽에 진터벌이 위치하고 있다. 남서쪽으로 삼성산성(三城山城)을 비롯하여, 용봉산성(龍峯山城)·마성산성(馬城山城)이 위치한 산줄기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며, 남동쪽에 옥천읍내가 자리하고 있다.

산성의 형태로 보아 옥천 지역의 어느 산성보다도 이른 시기에 축조된 성곽으로 옥천의 초기 치소(治所)가 아닐까 추정된다.

독립된 낮은 구릉지에 만들어진 둘레 약 800m의 토축성으로 남쪽으로 계곡을 낀 사모봉형(紗帽峯形)에 가까운 형태이나 계곡은 그리 크지 않다. 성안은 성벽과 능선부에 잡목이 무성하고, 그 밖의 평지와 경사가 완만한 지역은 모두 경작지가 조성되었다.

동쪽과 서쪽의 성벽은 완연하게 내외겹축(內外夾築)의 모양을 보이고 있으나, 북쪽은 경부고속도로의 관통으로 인하여 성벽이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남쪽의 성벽은 계곡부로 성벽의 대부분이 유실되어 마치 삭토한 성벽처럼 보인다. 산성은 남쪽으로 2개의 작은 계곡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계곡 사이의 능선상에 성벽을 구축하여 마치 동서로 연결된 성벽을 이룬 것처럼 보인다. 삼국시대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은 폐성(廢城)으로 보이므로 산성의 각종 시설은 거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지형으로 보아 현재 산성으로 통행하고 있는 남쪽

의 두 계곡부에 문터와 수구 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북쪽의 작은 계곡부에도 문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성벽의 형태가 완전한 동쪽 성벽을 살펴보면 작은 가지 능선 또는 성벽의 군데군데 약 7개의 작은 고대가 있어 이것이 곡성으로 추정되며, 전체 성벽 또한 이러한 중간 중간에 고대를 이룬 곡성을 마련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남쪽 성벽의 양쪽 끝에는 치성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성내는 민가 한 채가 들어서 있고, 민가 주변의 평탄지는 개사육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보다 서쪽의 평탄지는 밭으로 개간된 상태이다.

성내에서는 민무늬토기편을 비롯하여 적색·회색의 연질토기와 회청색의 경질토기가 간간히 발견된다.



[사진 5] 삼양리토성 성벽 모습

## 6. 서산성(西山城)

서산성은 옥천읍 문정리(門井里)의 해발 182.0m, 197.5m, 197.5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1-13-21-073 보은)의 산봉우리에 위치한 산성이다.

산성의 남쪽으로는 보은—옥천을 잇는 37번 국도가 지나고 성 아래로 터널을 통해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으며, 그 건너편으로 삼양리 토성(三陽里土城)과 옥천읍 일대가 훤히 바라다 보인다. 동북쪽으로는 문정리에서 옥각리(玉覺里)로 통행하는 호룡재가 있으며, 서남쪽으로 삼성산성(三城山城)과 서화천(西華川)과 월전리 부근의 구진베루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또한 서쪽과 북서쪽으로는 진터벌이 있는 서정리 일대이다. 서산성은 현재도 삼성산성과의 사이에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37번 국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지이다.

산성은 전체적으로 해발 182.0m, 197.5m, 197.5m의 봉우리 남쪽 사면을 남벽으로 하여 서쪽으로 낮아지는 계곡부를 둘러싸고 있는 사모봉형(紗帽峯形) 산성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삼태기 모양에 가까운 동서로 긴 부정타원형이며, 성벽의 잔존한 윗부분을 따라 잔 성벽의 둘레는 약 995m이다.

성벽은 모두 지형에 따라 내외겹축 또는 내탁의 방법으로 석축한 듯 하나, 현재는 모두 무너지고 토사에 덮여 있어 북쪽 성벽을 제외하면 모두 토루처럼 보여지고 있다. 계곡부를 지나 북쪽 정상부로 이어지는 성벽은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이나 내외겹축(內外夾築)된 성

벽이었음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성벽은 지형을 따라 남쪽 성벽이 높고 북쪽과 북서쪽의 성벽이 낮은 형태이며, 남동쪽 회절부에서 문정리의 장아실로 이어지는 계곡부에 2단의 차단벽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청원군 문의면 양성산성(壤城山城)의 남쪽 회절부 능선으로 이어지는 성벽에 차단벽을 마련한 것과 같은 형태로, 옥천 방향에서 오르는 적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하여 2중 3중의 방어시설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성벽은 동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로부터 서쪽으로 뻗어 내린 작은 가지능선을 따라 내외접 축된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남아 있다. 낮아진 능선은 해발 150m 지점에서 ‘작은성밑골’이란 계곡을 가로질러 서쪽 성벽으로 이어진다. 이 계곡부를 막은 서쪽성벽의 안쪽은 넓은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잡목으로 우거져 있다. 이곳이 연못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 평탄지의 너비는 대략 남북으로 약 50m, 동서로 약 40m의 크기이다. 평탄지 외측으로 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평탄지의 남쪽으로 현재 산성으로 통행하는 길이 나 있어 이곳이 서문지로 추정된다.



[사진 6] 서산성 성벽 모습

계곡을 막은 성벽으로부터 성벽은 서남쪽의 봉우리로 점차 높아지며, 서남쪽의 봉우리를 휘감아 돌아 다시 작은 마안형(馬鞍形)을 이루는 안부(鞍部)를 지난다. 이곳의 안쪽으로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곳은 원래 밭으로 경작되었던 곳이라 하며, 현재는 잡목과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는 곳이다. 이곳에도 작은 연못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평탄지 바깥으로 작은 계곡을 이루고 있다. 평탄지를 지나 작은 안부에 남문지로 여겨지는 문터의 형적이 있다. 문구부는 凹形으로 너비가 약 10m이다. 이 문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작은 계곡부로부터 성벽 밑쪽으로 돌아 들어오게 되어 있어 성벽 위에서 문으로 접근하는 적은 쉽게 방어할 수 있게 마련하였다. 이곳으로부터 성벽은 남동쪽의 구불거리는 능선을 따라 비교적 높게 축조하였으며, 곳곳에 성돌이 드러나 있다.

건물지로 여겨지는 곳은 성내의 곳곳에 있다. 연못지로 추정되는 계곡부와, 이 계곡부로부터 동쪽과 남서쪽의 능선으로 오르는 곳곳에 평탄한 대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계곡부에서 작은 안부로 이어지는 곳에도 건물지로 여겨지는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성내에서는 삼국시기의 각종 토기조각과 기와조각이 산재하여 있으며, 부근에 옥각리 석곽묘군이 최근 발굴조사 되었다.<sup>8)</sup> 이 성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으로 『朝鮮寶物

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23. 城址. 內南面 三陽里, 郡西面 西亭里. 西山城, 國有林. 西山城址라 稱함. 西亭里部落의 東方 約300間에 있는 土築(一部石築)의 山城으로 周圍 約 520間 거의 崩壞됨. 輿地勝覽에 「西山城 在郡西五里 石築 周二千百四十一尺 高六尺 有軍倉」이라 함.<sup>9)</sup>

이란 기록이 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선형 변경으로 이 산성 아래로 터널이 통과한다.

## 7. 성치산성(城峙山城)

군서면 은행리(銀杏里)와 사양리(舍楊里) 사이에 위치한 ‘성치산’ 혹은 ‘말동산’이라 불리는 해발 342.0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91 보은)의 독립된 산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산성의 북쪽으로는 매봉산 자락에 작은 보루가 있으며, 보다 북쪽으로 노고산성·숫고개산성과 동쪽으로 37번 국도를 건너 마성산성·동평산성·용봉산성이 있는 산줄기가 남북으로 뻗어 있어 옥천읍과 경계를 이룬다.

서쪽으로 대전으로 통하는 계현성(鷄峴城)과 곤륜산보루(昆崙山堡壘)가 위치하고 있어 대전 방면으로 통하는 길목과 계현성을 넘어 대전 남부를 거쳐 대전의 서쪽 사정성(沙井城)으로 통하는 길목을 지키기 위한 산성임이 분명한 백제계의 산성으로 추정된다.

성치산성은 342m의 봉우리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뻗은 두 개의 능선을 타고 내려와 계곡부를 에워싸고 있는 사모봉형(紗帽峯形)의 석축 산성이다.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성의 둘레는 약 400여m이다. 남쪽 계곡으로 오르거나 동측 능선으로 오르는 길과 성치산성의 서쪽 사양리 곤륜재 방면에서 능선 위까지 도로로 올라 함창 김씨 묘역 쪽으로 능선을 따라 올라 성치산성의 서문터로 오르는 길이 있다.

서문터는 능선방향 남편 측면에 북쪽 문구부 측벽선이 남았다. 곡면을 이룬 것으로 남측 측벽은 완전 붕괴 상태이고 표면에 석재가 보이지 않으나, 마치 곡성(曲城)의 옆면처럼 된 정상부를 감은 성벽은 붕괴가 진행 중이지만 외면 석축이 남아 있다.

동쪽으로 이어진 능선을 돌아 산의 지세를 따라 커다란 암반 노두를 그대로 두고 이용하면서 축조된 성벽은 거의 붕괴되었다. 성벽은 능선의 정상부에서 약간 내려간 지점을 돌아가며 축조되었다. 동남쪽 회절부(回折部)에서 성벽은 둥글게 회절하면서 문구부 측벽을 남기고 있으나, 모서리가 붕괴되었다. 성벽이 잘 남은 곳의 하나로 동남쪽의 문터가 된다. 그 서측으로 계곡을 횡단하는 성벽에 수구가 두 개 남은 것이 보이며, 이곳이 가장 잘 남은 성벽이기도 하다.

성벽은 큰돌을 사용(연질 회백색 내지 황갈색 화강암 등 2차 가공이 이루어진 돌)하여 아

8) 中央文化財研究院, 2002, 『沃川 玉覺里遺跡』.

9)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沃川郡.

래서 위로 단면이 부채꼴의 모습을 보이다가, 위에서 직립(直立)하거나 층단식으로 체감한 벽체이며, 현 표도에서 2~2.5m의 높이에 수구의 바깥 출수구(出水口) 바닥이 있다.



[사진 7] 성치산성 수구 모습

수구의 바닥은 외부로 돌출 된 혀 모양의 판석(舌狀板石)을 볼 수 없으며, 정면 네모꼴(方形)을 이룬 수구 위는 이맛돌을 겹으로 엮은 것이다. 서측의 것은 60cm 규모이며, 동측 것은 45~50cm 규모로 크기에 약간 차이가 있고, 방향이 성벽이 휘어든 것과 달리 약간 벌어진 방향을 향한다. 이 두 개의 수구 가운데 동측의 수구가 보다 붕괴가 심하게 진행 중이다.

이 수구의 안쪽으로 성내에 움푹하게 물이 모여드는 웅덩이가 있고 민묘가 있는데, 작지만 집수구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토사에 묻혀있다고 판단된다.

서측으로 경사를 올라서서 다시 성벽이 회절하면서 능선을 가로지르기 직전에 문구부 서측벽이 잘 보이는 남서쪽 문터가 있다. 낮아지는 동측의 문구부 측벽은 붕괴가 심하며, 능선을 돌며 곡성 모양을 이룬 성벽 외측 아래 20m 정도 지점에 단면 V자 모양으로 능선을 횡단한 참호가 있다. 회절한 성벽은 위로 점점 오르는 지형을 따라 면적이 붕괴된 상태로 잔존한다. 이 남향의 능선은 정상에서 아래로 민묘가 있는 곳에서 평탄하여 민묘 앞에 둥글고 깊은 웅덩이가 요지(凹地)를 형성하여 저수고로 여겨지나 이곳에도 민묘가 있다.

문의 형식이 백제의 석축 산성으로 발굴조사를 거친 대전시의 보문산성이나,<sup>10)</sup> 부여 성흥산성의 문터,<sup>11)</sup> 서천 남산성,<sup>12)</sup> 전라도 지역의 전형적인 백제 석축산성의 문터 형식<sup>13)</sup>을 취한 점, 배수구가 1.5m 정도의 평탄 밑면을 들어가서 층단이 한번 지고, 밖으로 나온 바닥돌이 없는 점, 성벽이 보축(補築)이 없이 아래서 위로 체감되다가 오르거나, 계속 체감되는 구조로 된 점에서 백제산성으로 여겨지고,<sup>14)</sup> 수구 밖에서 단 한 점의 토기편을 발견했는데, 회청색의 중립선문 경질호 편으로 역시 백제지역 산성 내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에 해당된다.

하나의 계곡을 두르고 회절부 이외에 별도의 치성이나 곡성이 없고, 현저한 곡성 모양의 회절부 측면 한쪽이 문터라는 점은 하나의 전형으로 여겨진다.

이 성에서는 바로 앞에 마주보듯 마성산성·동평산성 등이 동남쪽으로 마주보고 동평 들

10) 大田直轄市, 1994, 『寶文山城 發掘調査報告書』.

11) 安承周徐程錫, 1996, 『聖興山城 門址發掘調査報告書』, 忠南發展研究院.

12) 柳基正 外, 2006, 『舒川 南山城-西門址 1-2次 發掘調査』, 忠清文化財研究院.

忠清南道 歷史文化院, 2006, 『牙山 鶴城山城』.

13) 崔仁善 外, 2003, 『麗水 鼓樂山城 I』, 順天大學校 博物館.

崔仁善 外, 2004, 『麗水 鼓樂山城 II』, 順天大學校 博物館.

崔仁善 外, 2004, 『順天 劍丹山城 I』, 順天大學校 博物館.

김중문 외, 2007, 『井邑 古阜 舊邑城 I』, 전북문화재연구원.

14) 車勇杰, 2008, 「韓國 古代山城 城門構造의 變化」 『中原文化財研究』2, 中原文化財研究院.

관이 내려다보일 뿐만 아니라, 서남쪽으로 추부(마전)방면의 길이 똑바로 관찰되고, 서쪽으로 바로 논골 서쪽의 닭재성터(鷄峴城)가 마주 보이고, 북서쪽으로 곤륜재 위의 곤륜산보루가 바라다 보인다. 곤륜재, 닭재, 추부 방면의 진산과 금산 통로가 이 앞에서 만나고, 옥천으로 향하는 물길은 서화천을 따라, 육로는 사목재와 성재를 넘게되는 백제 동방 최전선의 요새로 여겨진다. 이 산성에 대한 문헌기록은 없으나, 일제강점기이 조사기록인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옥천군에서는

番號16, 郡西面銀杏里, 私有.上銀里部落ノ西方約三百間 古城山頂ニ在リ石築ノ山城ニシテ 周圍約三百五十間 高サ一間乃至三間 一部ハ天然ノ岩石ヲ利用ス 石壘大部分崩壞ス<sup>15)</sup>”

라 하여 둘레 약 630m, 성벽 높이 1.8~5.4m로 파악한 것이다.

성벽은 남쪽의 수구 부근의 성벽과 서쪽 성벽의 일부, 그리고 동문지 부근의 석축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다 무너졌다. 서쪽 잔존한 성벽은 60×25×45cm 정도의 자연 할석으로 외면을 약간 치석하여 층을 이루도록 쌓아올려 폭 5m로 내탁하였고, 남쪽 계곡부에는 내외겹축(內外夾築)하여 폭 4m, 높이 6.7m 정도가 완전하게 남아 있다.

문지(門址)는 남쪽 계곡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좌우의 성벽이 엇갈리도록 한 것으로 폭은 약 5m로 문구부(門口部)의 외측 모서리가 곡면(曲面)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백제 후기 석축 산성의 성문형식임을 보여주며, 동측 문터의 경우 웅성(甕城)의 시원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곡절하는 성벽을 갖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사진 8] 성치산성 성벽 모습

## 8. 매봉산보루(梅峰山堡壘)

군서면 은행리(銀杏里) 아랫 양심이 마을 북쪽의 매봉산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진 산줄기 끝의 봉우리에 위치한 보루성으로, 해발 228.7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91 보은)이다.

15)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沃川郡.

정상부에 직경 8m의 원형 대지가 있으며, 그 남서단에서 서남쪽으로 9.5m 길이의 용도상(甬道狀)의 석축이 남아 있다. 원형의 대지 밖으로 붕괴된 흔적이 단으로 남아 있는데 전체적인 형태는 삼각형에 가깝다.

이 석축을 동반한 시설은 위치와 규모로 보아 서남쪽에 위치한 성치산성(城峙山城)의 망대나 보루성으로의 성격을 가진다 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동쪽으로 동평산성이 바로 마주 바라다 보이는 위치이며, 보다 남쪽의 마성산성, 북쪽의 용봉산성은 물론 노고산성과 숲고개산성 등 월전리 일대 서화천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남서쪽 용도상의 석축 유구 서측으로 민묘가 1기 들어서 있다.

매봉산 산자락에는 이 보루성 외에 해발 277.2m의 봉우리에서 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에 석축시설을 갖춘 작은 보루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 9. 곤륜산보루(昆崙山堡壘)

군서면 사양리(舍楊里) 서성골 마을과 대전시 동구 낭월동(朗月洞) 사이의 해발 435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81 대전)의 산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보루성의 정상부는 대전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위치이며, 북으로 식장산에 옥천 방향으로 뻗은 산줄기 위의 숲고개산성·노고산성과 서화천 주변의 월전리 일대가 훤히 바라다 보인다.



[사진 9] 곤륜산 보루 성벽 모습

서쪽으로 37번 국도와 그 건너편의 마성산성·동평산성·용봉산성 등과 마주하고 있으며, 남동쪽으로 성치산성과 마주 바라보고 있다. 남쪽으로는 능선으로 이어져 옥천에서 대전으로 넘는 곤륜재를 지나 망덕산을 거쳐 계현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곳에서 계현성은 망덕산으로 인하여 바로 보이지 않아 망덕산에 작은 보루나 망대가 있어야만 하는 위치이다.

산성은 해발 435m의 봉우리 정상부를 둘러싼 산봉형(蒜峯形) 산성이며,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남북으로 긴 장타원형이다. 성벽의 둘레는 성벽 위를 기준으로 쯤 것이 약 155m이다.

석축은 정상부를 중심으로 둘러져 있으며, 서쪽 성벽을 제외한 나머지 성벽이 모두 잘 남아 있다. 동쪽의 성벽은 자연적인 급경사의 절벽 위에 석축을 쌓아 올렸는데, 성벽은 기반암에서 떼어낸 자연 할석을 외면만 살짝 치석하여 축성하였다. 잔존 성벽의 높이는 약 2~3m이며, 모서리를 맞추어 쌓아올려 자연적인 성벽의 기울기를 주었다. 성내는 모두 평탄한 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성과 같은 시설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이 성터에 대해서는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14. 城址. 郡西面 舍楊里. 私有. 城名不詳. 舍音部落의 西南方 約400間, 大田郡과의 境界에

있는 石築의 山城인데, 周圍 約50間. 沃川郡에 面한 部分은 天然의 巖壁을 利用하고 大田郡에 面한 部分은 片平岩으로 築造한 것이 崩壞됨.<sup>16)</sup>

이라고 한 것이 있다.

## 10. 계현성(鷄峴城)

군서면 사양리(舍楊里) 논골 마을과 대전시 동구 삼괴동(三槐洞)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325.8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0-100 대전)의 산봉우리에 위치한 석축산성이다.



[사진 10] 계현성 성벽 모습

산성에서 서쪽은 대전시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북쪽은 능선으로 이어져 곤륜산보루를 거쳐 식장산으로 이어진다. 서쪽으로는 논골 마을과

성치산성 및 마성산성·동평산성·용봉산성이 위치한 산줄기가 마주 바라다 보이며 남쪽으로 옥천의 서화천 유역에서 대전의 갑천으로 넘는 담재가 있다.

산성은 325.8m의 봉우리 9부 능선을 둘러싸고 있으나 남쪽으로 작은 봉우리를 가지고 있어 마안봉형(馬鞍峯形)에 가까운 산봉형(蒜峯形) 산성이다. 성의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남북으로 긴 장방형이며, 성벽 위쪽을 기준으로 켜 성의 둘레는 약 262m이다.

성벽은 대부분 무너졌으나 군데군데 석축한 성벽이 남아 있다. 현재 북쪽 성벽만이 확연하게 내외겹축(內外夾築)의 형상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성벽은 토사에 묻혀 있어 내외겹축인지 내탁의 성벽인지 확인 할 수 없다.

성벽은 암반 노두에서 떼어낸 석재를 살짝 치석하여 수평 눈 줄 맞추기 하여 축성하였으며, 석재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 남쪽 성벽의 잔존된 성벽의 높이가 약 4m로 원래 성벽의 높이는 이보다 높아 약 5~6m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성벽 아래로는 작은 계곡부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이곳이 수구지로 추정된다. 큰 석재가 성벽 상단부에 자리하고 있어 이것이 수구의 머리돌로 이용된 듯 하나 그 아래 안쪽은 막혀 있어 이곳이 수구였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성 안쪽으로 약 5~7m 너비의 내환도가 있어 성을 일주할 수 있다. 성의 북쪽 봉우리에는 6.2×6.7m 크기의 방형 석축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장대지(將臺址)로 추정된다.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남쪽으로 점차 낮아지는 능선부에는 비교적 평탄한 대지가 있으며, 이곳에는 민묘 2기가 들어서 있다.

성의 북서쪽 회절부에는 높이 3.3m, 직경 약 6m의 돌출부가 있어 삼정리산성이나 성치산성에서 보이는 치성이나 망대지로 추정된다.

16)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沃川郡.

문지(門址)로 추정되는 곳은 3곳이 있는데 북서쪽의 가지능선으로 오르는 곳, 남동쪽과 남서쪽 회절부로 그 형적이 희미할 뿐, 문터인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통행하며 만들어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이 성터에 대해서는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15. 城址. 郡西面 舍楊里. 私有. 城名不詳. 長洞部落의 西方 約200間 大田郡과의 境界에 있는 石築의 山城인데, 周圍 約250間, 高 約2間乃至3間, 稍完全함. 高麗末 紅巾賊의 亂을 避하기 爲해 附近人民들이 築造한 것이라서 農城이라 稱함.<sup>17)</sup>

이라는 기록이 있어서 당시 조사에서는 고려 말기의 것으로 전해오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나, 축성은 이미 삼국시대였다고 생각된다. 대전광역시의 보문산성과 서쪽으로 바라다 보인다.

## 11. 환산성(環山城)

환산성은 군북면 이백리(二栢里)와 환평리(環坪里)·증약리(增若里)·추소리(湫沼里)·항곡리(恒谷里) 사이의 581.4m의 고리산(環山)과 그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진 산줄기(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52·062 보은)를 따라 이어지는 곳곳의 산봉우리에 고리형태로 석축한 보루성(堡壘城)을 통칭하는 것이다. 즉, 능선 양쪽이 모두 험하고 가파른 자연지세를 이용하여 환산 전체를 하나의 요새로 만들었던 것이다. 현재 1:5,000 지형도 상의 환산성 위치 표시는 잘못된 것이다.

지금까지의 조사에서는 이백리산성(二栢里山城)이라 알려진 것을 비롯하여 모두 5개의 보루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으나, 금번의 조사에서 1개의 보루가 더 찾아져 모두 6개의 보루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환산성이 위치한 산줄기는 하나의 독립된 산줄기로 이루어져 있다. 북쪽으로는 대청호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구건리산성을 비롯하여 보은—옥천을 잇는 37번 국도가 있다. 남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경부선 철도·4번 국도가 동서로 이어져 있고, 보다 남쪽으로 노고산성·숯고개 산성이 위치한 산줄기와 삼성산성·용봉산성·동평산성·마성산성이 있는 산줄기는 물론 성치산성이 위치한 성치산과 남동쪽으로 옥천읍내가 내려다보인다. 서쪽으로 백골산성과 찰꼬리봉산성, 대전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이렇듯 환산성이 위치한 이곳은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로 지세가 험준하여 적을 방어하기에 편리한 요충이다.

### ① 제1보루(第1堡壘：二栢里山城·할배성)

군북면 이백리 황골에서 동북쪽으로 바로 올라다 보이는 해발 360.4m (1:5,000 지형도 도

17)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沃川郡.

엽번호 NJ52-13-21-062 보은)의 환산의 가장 남쪽 봉우리에 위치한 산성으로 일명 이백리산성·할배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 보루에 대해서는 일제 강점기의 조사기록인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12. 城址. 郡北面 二栢里. 私有. 城名不詳. 槐木里部落의 東方 約200間 山頂에 있고 東南方은 天然의 巖壁을 利用하고, 西北方에 人工을 加한 石築의 山城으로 周圍 約200間 石壘는 崩壞 됨.<sup>18)</sup>

이라 하여 알려져 왔으며, 이후 한동안 이것을 고리산성으로 의심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고리산에 여러 개의 보루가 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사진 11] 환산성 제1보루 성벽 모습

성의 남쪽 바로 아래로 경부선·경부고속도로·4번 국도가 지나고 있으며, 조선시대 증약역(增若驛)이 북쪽에 바로 인접하여 있어 예로부터 중요한 교통로였음을 알 수 있다. 맞은편의 노고산성과 마주보고 있고, 이 두 산성은 속칭 할배성(할아버지성)과 할미성(할머니성)으로 불리운다.

환산의 남쪽 끝 지봉(支峰)을 감싼 동고서저(東高西低)형의 산봉형(蒜峯形) 산성으로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다. 성벽 위를 기준으로 겐 성의 둘레는 약 217m이다.

석축 산성이며, 서쪽의 성벽은 내외겹축의 성벽으로, 나머지 성벽은 내탁의 방법으로 석축하였고, 동쪽 성벽을 제외한 나머지 성벽은 대부분 붕괴되어 그 형적만을 남기고 있다.

성벽이 잘 남아 있는 동쪽 성벽은 자연적인 급경사를 이용하여 축성하였으며, 암반에서 떼어낸 자연할석을 외면만을 살짝 치석하여 성벽을 쌓아 올렸다. 성벽은 약간씩 들여쌓기 하여 자연스럽게 성벽의 경사를 이루게 하였으며, 군데군데 자연암반을 그대로 성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잔존 성벽의 높이는 약 3~5m의 높이로 당초 성벽의 높이는 이보다 높은 6~7m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성의 남쪽과 북쪽 끝에 현재 각각 남북 7m, 동서 6m 크기의 치성(雉城)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은편의 노고산성·숫고개산성은 물론 환산성의 각각의 보루에 나타나는 동일한 양식의 축성법이다. 망대지(望臺址)로 추정되는 곳은 성의 북쪽 가장 높은 봉우리로 남북

18)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沃川郡.

12m, 동서 7m 크기의 석축이 남아 있다.

성의 중앙에 지름 약 10m, 깊이 약 4~5m에 이르는 큰 웅덩이가 있는데, 우물터인지 저수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문지는 북서쪽 경사면에 폭 3m의 너비로 희미하게 남아 있다.

성내의 중앙과 남쪽에는 성과 관련 없는 석축의 시설이 있는데 이는 민간신앙을 숭배하는 흔적으로 보인다.

## ② 제2보루(第2堡壘)

제2보루성은 제1보루성에서 북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700m 떨어진 해발 414.5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62 보은)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봉우리에서 남동쪽 제1보루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서쪽 증악리 방향으로 이어진 산줄기가 만나는 곳이다. 현재 1:5,000 지형도에는 이 봉우리의 서쪽 412m의 봉우리에 환산성을 표기하고 있다.



[사진 12] 환산성 제2보루 성벽 모습

산성은 414.5m의 봉우리를 둘러싼 산봉형(蒜峯形) 산성이며, 성벽 아래를 기준하여 잔 둘레는 약 113m이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남서-동북으로 긴 삼각형 형태이다.

성벽은 자연지세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남서·남동쪽 일부에 석축의 유지가 남아있다. 석축은 자연 할석을 외면만을 살짝 치석하여 수평 눈 줄 맞추기 하여 쌓았으나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다. 능선으로 이어지는 3곳의 성벽이 약간씩 돌출 되어 있어 제 1보루성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치성을 시설한 듯하나 확인하지는 않다.

## ③ 제3보루(第3堡壘)

제2보루성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800m 떨어진 해발 523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62 보은)의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 보루성에는 조선시대 환산봉수(環山烽燧)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환산 봉수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기록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11. 烽燧. 郡北面 環坪里, 增若里. 環山の1, 國有林. 環山烽燧라 稱함. 環山 꼭대기에 石壘를 남김. 輿地勝覽에 「環山烽燧 西應鷄足山 南應月伊山」이라 함.<sup>19)</sup>

이라 하였다. 현재 산성의 시설은 찾을 수 없고 장방형의 봉수대 터가 잘 남아 있다. 산봉우

19)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沃川郡.

리 정상부 외곽을 두른 봉수대는 남북 37m, 동서 9~11m 크기로 전체 둘레가 약 100여m에 이른다. 사방의 방화벽이 잘 남아 있으며, 봉수대의 통행로는 남쪽의 양끝과 북쪽에 있다.

이 조선시대의 봉수대는 기존에 있었던 환산성의 제3보루를 개축하여 시설한 것으로 추측된다. 동쪽의 방화벽 아래로는 급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으나, 남쪽과 서쪽의 방화벽 아래로 통행할 수 있는 마치 외환도와 같은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당초 제3 보루성의 석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곳의 석축을 헐어 봉수대의 방화벽을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 ④ 제4보루(第4堡壘)

제3보루성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500m 떨어진 해발 556.1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62 보은)의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사진 13] 환산성 제4보루 성벽 모습

556.1m의 산봉우리 정상부를 둘러싸고 있는 산봉형(蒜峯形) 산성으로 전체적인 성의 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역삼각형의 형태이다. 성벽 아래 부분을 기준으로 켜 성의 둘레는 약 107m이다.

석축은 남쪽으로 이어지는 능선부에만 남아 있으며, 암반에서 떼어낸 장방형의 석재와 부정형의 석재를 외면만을 살짝 치석하여 수평 눈 줄 맞추기 하여 석축하였다. 남쪽 능선으로 이어진 성벽은 설상(舌狀)으로 내밀고 있어 자연적인 치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설하였다. 남쪽 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방향을 모두 급경사로 자연적인 지세를 성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성의 북동쪽 회절부에 현재 민묘가 1기 들어서 있다.

#### ⑤ 제5보루(第5堡壘)

제4보루성으로부터 북쪽으로 직선거리 약 900m 떨어진 해발 581.4m (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52 보은)의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1:5,000 지형도에 이 봉우리를 환산이라 표기하였으며, 이 봉우리가 이 산줄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한다.

환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산봉형(蒜峯形) 산성으로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동북—남서로 긴 타원형이다. 성벽 위를 기준으로 켜 성의 둘레는 약 217m이다. 제5보루성은 제1보루성과 함께 환산성에서 200m가 넘는 큰 보루성으로 나머지 보루성을 지휘·통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성벽은 모두 자연적인 급한 경사면을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석축의 흔적이 완전하다. 특히 남쪽의 성벽은 아직도 견고하게 남아 있는데, 이곳의 기반암을 그대로 떼어낸 부정형의 석재를 외면만 살짝 치석하여 석축하고 있다. 잔존한 석축의 높이는 약 2~2.5m가 남아

있으며 당초 성벽의 높이는 이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성의 북동쪽은 넓은 평탄지로 조성되어 헬리콥터 이착륙장이 들어서 있어 산성의 원형을 상실하였으며, 이 헬기장을 중심으로 원형의 석축이 둘러져 있는데, 이것이 당초의 성벽인지 아니면 헬기장을 시설하면서 석축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남서쪽 능선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비교적 평탄한 대지로 이곳에 건물지가 있었던 듯하나 현재는 예비군 참호가 파여져 역시 원형을 잃어버렸다.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부에 치성이 마련되어 있으며, 나머지 두 개의 능선으로 이어지는 곳에도 치성이 시설된 듯하나 확인하지 않다.



[사진 14] 환산성 제5보루 성벽 모습

### ⑥ 제6보루(第6堡壘)

제6보루성은 제5보루성에서 동쪽으로 이어진 안부를 지나 해발 580.3m (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52 보은)의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5보루성과 직선거리 약 200m이다. 산 정상부를 감싸고 있는 산봉형(蒜峯形) 산성이며, 전체적이 평면형태는 북동—남서로 긴 타원형이다. 전체 둘레는 성벽 위를 기준하여 잔 것이 약 82m이다.



[사진 15] 환산성 제6보루 성벽 모습

사방을 석축한 것으로 특히 남쪽 성벽은 약 2m 높이의 잔존된 성벽이 잘 남아 있다. 성벽은 환산성의 다른 보루성과 마찬가지로 자연암반에서 떼어낸 부정형 내지 장방형의 석재를 외면만 살짝 치석하여 쌓아올렸다.

## 12. 구건리산성(九巾里山城)

군북면 구건리(九巾里) 보골 마을의 북동쪽에 위치한 해발 282.2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64 보은)의 산봉우리에 위치한 석축 산성이다. 이곳 주민들은 이 산성을 속칭 ‘할미성’이라 칭하고 동쪽의 늘치 마을 북동쪽에 위치한 토축 산성을 ‘할배성’이라 칭하고 있으나, 금번의 조사에서 할미성 만을 확인하였을 뿐 할배성이라 속칭되는 토축 산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산성에 대하여 일제강점기의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는

番號 10. 城址. 郡北面 支五里. 老姑城 國有林. 老姑城址라 稱함. 浦五包部落의 東北方 約300間의

山頂에 있고, 天然의 巖壁을 利用해 半人工을 加한 石築의 山城으로 大部分 完存함. 周圍 約100 間 높이 1間 乃至 2間.<sup>20)</sup>

이라 하였음이 있다. 산성의 서쪽 약 1km 거리에 환산성 여섯 개의 보루(堡壘)가 곧바로 올려다 보이며, 남쪽으로 옥천읍 일대와 삼성산성을 비롯 용봉산성·노고산성·숫고개산성이 훤히 보이는 위치이다. 동쪽으로는 보은—옥천을 잇는 37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다.

산성은 작은 2개의 봉우리 정상부를 둘러싼 마안봉형(馬鞍峯形)으로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동서로 긴 땅콩 모양이다. 둘레는 성벽 위쪽을 기준으로 하여 157m에 이른다.

성벽은 이 지역의 자연암반인 역암을 채석하여 석축한 것으로 남쪽 성벽은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의 회절부 성벽은 기단부만이 남아 있다. 북쪽 성벽은 경사가 심한 절벽에 가까운 지형으로 붕괴되었다.

성벽이 잘 남아 있는 남쪽 성벽을 보면 잔존성벽의 높이가 약 5m에 이르며, 중간 중간 암반 노두를 그대로 성벽으로 이용하고 있다. 석재는 기반암에서 떼어낸 석재를 장방형으로 치석하여 수평 눈줄 맞추기 하여 축성하였으며, 중간 중간 쇠기 돌을 이용하였다.

서쪽 성벽의 능선으로 이어지는 성벽에 8.3×6m 크기의 치성을 시설한 듯 하나 능선을 따라 회절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망대지로 추정되는 곳은 치성으로 추정되는 곳의 위쪽에 약 6×6m 크기의 별도 석축시설이 있어 이곳이 망대지로 추정되며, 양쪽 봉우리 사이에 건물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성으로 오르는 길은 보골 마을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서쪽 능선 길과 동쪽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 있으나 별다른 성문 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사진 16] 구건리 산성 성벽 모습

### 13. 노고산성(老姑山城)

군북면 이백리(二栢里) 괴목부락과 군서면 오동리(梧桐里) 무중골 마을 경계인 해발 411m (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72 보은)의 산정상부에 위치한 석축산성으로 속칭 ‘할미성’이라고 흔히 불린다. 현 1:5,000 지형도에 표기된 노고산성의 위치와 크기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 산성은 이보다 남쪽에 위치한 해발 411m의 봉우리에 위치하고 있다.

동북쪽으로 마주 바라다 보이는 이백리산성(二栢里山城：環山城 第1堡壘)을 ‘할배성’으로, 이 산성을 ‘할미성’이라 속칭하는 것은 서로 동서로 마주보고 있어 신라와 백제가 이 두 성에 주둔하여 싸웠다는 전설과 관련이 있는 듯 하다.

20)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沃川郡.

산성의 북쪽으로는 경부고속도로·경부선·4번 국도가 지나며, 보다 북쪽으로 환산성이 위치하고 있으나 작은 봉우리로 인하여 시야가 막혀 있다. 지형 상으로 북쪽 393m의 봉우리에 보루(堡壘) 또는 망대(望臺)가 있어야만 환산성 일대를 마주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곳에는 보루나 망대와 같은 시설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다 서쪽으로 숲고개 산성을 시설한 듯 하다. 북동쪽으로 백골산과 찢꼬리봉 산성이 위치하고 있다. 서쪽은 숲고개와 숲고개산성을 지나 식장산으로 이어져 대전시와 경계를 이룬다.

남쪽으로는 삼성산성·용봉산성·동평산성·마성산성·성치산성·곤륜산보루가 한눈에 들어오며, 성왕의 전사지로 전해지는 구진배루가 바로 내려다보이는 위치이다.

산성은 411m의 산봉우리를 둘러싼 산봉형(蒜峯形) 산성으로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남쪽이 약간 넓은 남북으로 긴 타원형이다. 둘레는 성벽 위를 기준으로 204m이다. 성의 남쪽과 동쪽은 수십 길의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별도로 축성할 필요가 없는 자연의 요새이며, 북쪽과 서쪽 부분만을 석축 하였다. 석축한 부분의 성벽은 내외겹축(內外夾築)한 성벽으로 대부분 무너져 현재 그 높이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무너져 내린 성돌로 보아 약 3~4m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석축한 성벽의 내측으로 약 8m에 이르는 비교적 넓은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어 이것이 내환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석축은 이곳의 기반암에서 떼어낸 석재를 별도의 치석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다.

산성의 축성 형태와 지세로 보아 주로 남쪽과 동쪽을 방어정면으로 하여 축성한 산성으로 보인다. 북쪽과 남서쪽의 능선으로 이어지는 곳에는 치성이 남아 있는데, 특히 북쪽 능선부에 있는 치성은 2.2m의 간격을 두고 2단으로 쌓았던 석축이 잘 남아 있어 특이한 축성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쪽 능선방향으로 치성을 시설한 것은 맞은편의 이백리산성(環山城 第1堡壘)과 같은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성의 북측으로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어 건물지로 추정되며,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동서 23.2m, 남북 14.8m의 평탄지로 이곳이 장대지(將臺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淑夫人延安車氏」의 민묘 1기가 전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유구는 찾을 수 없다.

현재 산성으로 오르는 길은 북쪽 이백리에 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과 서쪽의 식장산에서 이어지는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 있으며, 별다른 문지(門址)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사진 17] 노고산성 성벽 모습

#### 14. 숲고개산성

군북면 자모리(自慕里)의 윗자모실 마을과 군서면 오동리(梧桐里) 점말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511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472 보은)의 산 정상부에 위치한 석축산성이다. 숲고개 산성은 이번 지표조사에서 새로이 찾아진 산성으로 지금까지는 그 존재가 알려지지 않고 있던 산성이다.

현재 주민들이 군서면 오동리 무중골에서 군북면 자모리 갯골로 넘어가는 고개를 속칭 숲고개라 칭하고 있고, 이곳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명 숲고개 산성으로 이름하여 설명하기로 하겠다<sup>21)</sup>. 숲고개를 지나 동쪽으로 이어지는 능선의 마지막 봉우리에 노고산성(老姑山城)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산줄기를 따라 보루와 같은 작은 성들을 배치하는 것은 주변의 마성산성이 있는 산줄기 및 환산성이 있는 산줄기 등 이 지역의 특징적인 산성의 입지조건으로 여겨진다. 산의 정상부에서 바라보면 북쪽으로 환산성(環山城)이 위치하고 있는 산줄기가 바로 마주 바라다 보이며, 이는 북쪽 방향의 시야가 막혀 있는 동쪽에 위치한 노고산성(老姑山城)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어, 이 두 산성이 같은 국가에 의해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산성의 남쪽과 동쪽으로 군서면 일대의 산성들과 옥천읍 일대가 훤히 내려다보인다.

산성은 작은 계곡부를 하나 가지고 있으나 해발 511m의 산봉우리 정상부를 에워싸고 있는 산봉형(蒜峯形)산성이며, 성벽 위를 기준으로 켜 성의 둘레는 209m에 이른다.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부정타원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석축은 남쪽 성벽의 일부와 동쪽 회절부 부근에 잘남아 있으며, 북쪽의 성벽은 석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삭토(削土)에 의하여 토루를 만든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다만 북쪽 성벽 내측으로 약 2m 너비의 내환도와 같은 평탄지가 돌려져 있다. 잔존한 석축 성벽은 이곳의 기반암에서 떼어낸 부정형의 석재를 이용하여 축성하였으며, 중간 중간에 쇠기 돌을 사용하고 있다. 별다른 치석의 흔적은 찾을 수 없으며, 수평 눈 줄이 맞지 않는다. 잔존한 성벽은 약 1.5~2m의 높이로 남아 있으며, 지세로 보아 당초 성벽의 높이는 3~4m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동쪽 숲고개와 노고산성으로 통하는 능선부에 동서 8m, 남북 4m 규모의 치성이 있으며 반대편의 능선부에서는 치성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나, 바로 동쪽의 노고산성의 축성방법과 같은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성의 가장 높은 봉우리와 동쪽 끝에 장대지로 추정되는 석축시설이 있는데, 동쪽의 것은 9.6×6.2m, 봉우리의 것은 8×8m의 크기이다. 서쪽 봉우리 서쪽으로 평탄지가 있어 이곳이 건물지로 추정된다.

현재 산성으로 오르는 길은 동서 양쪽의 능선부와 북쪽 자모리에서 능선을 타고 오르는 길이 있으나 문지(門址)의 흔적을 찾을 수



[사진 18] 숲고개산성 성벽 모습

21) 『文化遺蹟 分布地圖』-沃川郡-과 『文化遺蹟 分布地圖』에서는 老舅山城이라 표기하고 있다.

없다. 잔존된 석축과 지형으로 보아 주로 남쪽을 방어정면으로 축성한 것으로 보인다.

## 15. 이원리산성(伊院里山城)

이원면 이원리(伊院里)의 현리(縣里) 마을 북쪽에 위치한 해발 198.5m와 191.5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8-006 이원)의 속칭 성재산이라는 독립된 야산에 축조된 산성이다.

옛 기록에는 이 산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이 지역이 신라의 이산현(利山縣)으로 이원리산성은 그 중심에 위치하므로 이원지역의 역사변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의 이원면은 지금의 옥천군인 관성군(管城郡)의 영현(領縣)으로 처음에는 소리산현(所利山縣)이라 하였다가 경덕왕 때에 이산현(利山縣)으로 개명하였으며, 조선 고종 32년(1895)에 지방관제의 개정에 의하여 이내면(伊內面)이라 하였다가 1929년 이원면으로 고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sup>22)</sup>

이원리 산성은 옛 기록에는 전혀 찾을 수 없으며,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발간된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 ‘이원장(伊院場)의 북방 소구상(小丘上)에 있는 산성으로 성이름은 자세하지 않고 토축으로 되었으며, 성의 둘레는 300間(540여m)으로 겨우 그 터를 남기고 있다’<sup>23)</sup>고 하여 처음으로 보이고 있다.

이원면은 신라 때의 소리산현으로 후에 이산현으로 이름이 바뀌어 옥천군에 속해 있었던 유서 깊은 고장으로 넓은 들 가운데 자리잡은 이 산성 이외에는 따로 성터를 찾을 수 없고, 성안에서 삼국시대의 토기 및 기와편이 무수히 발견되고 있다. 낮은 야산에 축조된 고식의 산성이라는 점에서 이 산성이 소리산현의 옛 치소(治所)로 추정된다.

지금의 이원면 소재지는 산성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성의 북쪽으로 경부선 철도와 4번 국도가 지나고 있으며, 그 북쪽으로 용방들이 넓게 펼쳐져 있다. 서쪽으로 옥천에서 양산으로 통하는 501번 지방도가 지나고 있다. 성의 동쪽으로는 이원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휘감아 돌아 자연적인 해자(壕字)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성은 동서의 두 봉우리와 작은 계곡부를 포함하고 있는 사모봉형(紗帽峯形)으로 전체적인 평면형태는 동서로 긴 불규칙한 타원형이다. 성벽의 둘레는 성벽 위를 기준으로 약 652m에 이른다.

남문지를 기준으로 서쪽 성벽의 중간 중간에 석축의 성벽이 드러나 있으며, 동쪽 성벽은 확연한 내외겹축의 성벽으로 축조한 듯 하나 현재 많이 무너져 내려 석축인지 토루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성의 서쪽 사면에 민묘를 조성하면서 성의 일부가 파괴된 단애면을 보면 성 안쪽으로 기반토인 마사토를 삭토한 후 성 안쪽을 돌과 흙을 혼합하여 토루를 마련한 단면이 보이고 있으며, 보다 서측의 훼손된 성벽부에는 많은 성돌이 드러나 있어 석축한 것으로 보이나 보다 정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통하여야만 알 수 있을 것이다. 북

22) 한글학회, 1970, 『韓國地名總攬』 충청북도, p.269.

23)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忠清北道 沃川郡.

쪽 성벽은 대부분 삭토에 의한 토루로 되어 있으며, 내측으로 폭 5m의 내환도가 조성되어 있다. 북벽의 내측으로는 계단상으로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다.

서쪽 회절부에 석축한 성벽이 2단으로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1단은 길이 9.5m, 높이 약 3m이며, 2단은 1단보다 1.3m 안쪽에 길이 12.5m, 높이 1.8m의 성벽이 있다. 2단의 석축은 1단의 위쪽 석축이 무너진 후 개축한 것으로 보인다.

성돌은 장방형의 석재로 암반 노두에서 떼어낸 석재를 일정 정도 치석하여 석축하고 있으며, 중간 중간 채기 돌을 이용하여 수평 눈 줄 맞추기 하여 축성하였다.

산성의 동·서 능선 끝에 치성이 배치되어 있으며, 서쪽 치성은 2단의 석축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석축은 9.5×6.0m의 크기이며, 두 번째 석축은 약 4m 안쪽에 축조되어 있다. 현재 남아 있는 2단의 석축이 당초 계단상으로 시설한 것인지 아니면 동측의 2단 석축과 같이 개축한 것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동쪽의 치성은 능선으로 이어지는 곳에 그 형적만을 희미하게 남기고 있는 뿐 자세한 크기는 알 수 없다.

장대지(將臺址)는 동서 양쪽 봉우리 위에 있었을 것을 추정되며, 보다 높은 서쪽 봉우리는 현재 개인의 묘가 자리 잡고 있다. 북쪽 성벽 안쪽의 계단상으로 이루어진 평탄지가 건물지로 추정되며, 성내에서 가장 넓은 평탄지는 산성의 남쪽 계곡부에 있다. 이곳은 성내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성내의 물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흘러가도록 되어 있어 이곳에 저수시설과 수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지로 추정되는 곳은 남쪽 계곡부와 동서 양쪽 능선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남쪽의 계곡부는 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완전히 훼손된 상태이며, 양쪽 능선의 치성 옆으로 문지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이원리 산성은 현재 정밀한 지표조사 또는 시굴조사·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인의 묘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장비로 임의로 길을 내면서 성벽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있으며, 훼손된 단애부에 삼국시대의 토기편 및 기와편이 대량으로 흩어져 있는 상태이다.



[사진 19] 이원리산성 석축 및 토축 성벽 모습

## 16. 화학리산성(禾鶴里山城)

옥천군 안내면 현리와 안남면 화학리 사이에 있는 사모봉형(紗帽峯形)의 석축산성이다. 1:50,000 지형도(도엽번호 NJ52-13-21 보은)에는 옥천군 안내면 현리와 인포리, 안남면 화학

리 마느실, 도농리 도재 사이에 하마산(下馬山)이 표기되어 있는데, 안내면과 안남면의 경계를 이루는 산 능선에 해발 361.7m의 삼각점이 표기되어 있다. 수일부락 북서쪽이며 농암저수지(農岩貯水池) 서북쪽으로 골짜기를 올라가는 소로 표시가 접근로로서 농업용 기계가 올라다닐 수 있는 도로가 계곡 쪽으로 나 있다.

성터가 있는 산의 똑바로 북쪽은 안내면 정방리이다. 북동쪽으로는 현리-원남 사이를 잇는 들판이 있고, 산의 북쪽으로는 현리를 지나는 보은-옥천 사이의 37번 국도와 남쪽으로는 575번 지방도가 있다.

이 산성과 관련하여 주목할 기록으로는 『新增東國輿地勝覽』沃川郡 屬縣의 安邑縣에 대해

在郡東三十八里 本新羅阿冬兮縣 景德王改安貞爲管城郡領縣 高麗初改今名 顯宗九年屬京山府 後復來屬<sup>24)</sup>

이라 한 것이 있어서 옛 신라의 아동혜현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보은과 옥천 사이의 도로 중간에 있는 중간 거점이 되는 성터가 된다.

산성은 동서 방향으로 뻗은 산줄기의 최고봉(현리에서 보면 윗면을 평평히 깎은 듯하게 보임)에서 남향으로 뻗은 서쪽 능선 대지(긴 장방형처럼 보임)가 있고, 정상에서 동쪽으로 내려가 작은 안부(鞍部)를 이룬 곳에서 봉우리를 이룬 능선을 감아 내려가 좌우로 능선을 낀 중앙 작은 계곡 곡지(谷地)를 둘러싼 것으로, 전체적으로 키(箕) 모양이나 삼각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지형은 서쪽과 북쪽 동쪽은 높고 남쪽으로 낮은 곳을 이용하였다.

석축으로 기반암인 회청색 내지 흑회색 화강편마암에 화강암과 석영암이 섞여 축조되었다. 성벽의 잔존부는 남서쪽 회절부, 남벽 서쪽 회절부 아래, 동벽 큰 참나무 옆에 남아 있으며, 특별히 보축의 흔적은 없다. 남쪽 곡지에 저수지와 수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동측으로 현재 농로가 나 있는 곳 부근이 문터로 추정된다. 농로는 계곡으로 올라와 성내에서 서측 능선 대지를 한바퀴 휘감으면서 나 있고, 성내는 경작지로 개간하면서 많이 훼손되었다. 시계반대방향으로 한바퀴 돌아보면 정상부의 서북 모서리 바로 안쪽에 민묘 1기가 있고, 약간 움푹하여 마치 논산 황화산성 북단을 연상케 하나 별도의 구역은 아니고 내환도상으로 여겨진다. 안쪽 최고 위치는 농로 개설로 석재와 와편이 많이 노출되었다. 남향하는 성벽이 작게 호형(弧形)을 이루고 회절부처럼 약간 높아져 방향을 조금 전환한 후, 약간 낮아지며, 다시 호형을 이루어 대지를 감싸고 돌아 남벽으로 이어진다.

남벽은 능선을 횡단하며, 밖으로 민묘가 있다. 이 부근에 성벽의 잔존부가 약간 남아있다. 다시 계곡으로 급경사를 이루어 내려가면서 석축은 붕괴되어 있으며, 곡부(谷部)에서 성내의 물이 배수되면서 퇴적되어 성벽 위로 배수되어 붕괴 위험이 크다.

성의 내부에 민묘가 만들어지고 급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능선 위로 층단을 이루어 개간되었다. 농로가 계곡 동측으로 나 있어서 곡부를 가로지른 외측에서 역시 길이 굽어져 계곡 서측으로 이어지도록 나 있다. 동쪽 성벽 역시 급경사에서 붕괴되었는데, 둥글게 회절

24) 『新增東國輿地勝覽』 忠淸道 沃川郡.

하면서 능선의 외연(外緣)으로 돌아가며 경사를 오른다. 큰 참나무가 있는 외측에 성벽 잔존부가 있다. 계속 지형을 따라 올라 동쪽 정상부에서 북쪽 성벽이 되며, 북쪽 성벽은 완전 붕괴된 상태로 작은 안부를 지나 경사져서 정상에 닿는다.

이 산성에 대하여는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인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7 城址, 安南面 禾鶴里, 土木局所管, 城名不詳 晩谷部落ノ後方 約二百間ニ在リ石築ノ山城ニシテ周圍約三百八十間 高サ平均約十尺 基部徑約四間 殆ト崩壞ス」<sup>25)</sup>

라 하여, 둘레는 약 684m, 성벽 높이가 평균 3m, 너비 약 7.2m로 파악하고 있다.

북쪽 작은 안부에 문터의 흔적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문터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곡성과 치성의 흔적도 찾을 수 없다. 북쪽으로 옛 고을의 치소로 생긴 이름인 현리(縣里) 일대가 바로 보이며, 서쪽으로 37번 국도가 지나간다. 남쪽으로 화학리로 통하는 포장도로가 있는데, 이곳에서 성으로 농로가 있어 통행이 가능하다. 바로 서쪽에 대청뎌, 화인진이 있어서 교통의 요지를 공제하는 곳이며, 현리에 관사가 있기 이전 통일신라 시기, 고려 초기의 치소로 볼 수 있고 일부 기와의 문양에 승석문이 있는 것이 있으며, 단면을 한 번에 자른 격자문, 붉은색 무문, 선조문 등 삼국시대의 유물이 있으나, 삼국시대 신라토기(7세기) 이전의 것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성벽은 비교적 큰 석재를 체감하여 쌓다가 수직에 가깝게 쌓았으며, 수평 눈 줄 맞추기 하여 쌓았으며, 켜기 돌, 모서리 맞춤 등이 관찰된다.



[사진 20] 화학리산성 성벽 모습

## 17. 도농리산성(道農里山城)

안남면 도농리(道農里) 도재 마을과 안내면 오덕리(五德里) 안지목 마을의 경계를 이루는 해발 425.8m(1:5,000 지형도 도엽번호 NJ52-13-21-048 보은) 속칭 성재산의 정상부에 위치한 산성이다.

산성의 남쪽으로 바로 내려다보이는 ‘도재’ 마을에 중봉(重峯) 조헌(趙憲)의 묘소와 비각이 있고, 성재산의 서쪽과 남서쪽은 큰음달산과 하마산으로 이어져 화학리와 경계를 이룬다. 큰음달산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능선 위에 화학리산성(禾鶴里山城)이 위치하고 있다. 산성의 동쪽으로는 보은—영동을 잇는 19번 국도와 북쪽으로는 보은—옥천을 잇는 37번 국도가 지나고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25)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忠淸北道 沃川郡.

주변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정상에 오르면 사방을 관망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면과 안남면 일대가 한눈에 들어온다. 산성은 해발 425.8m의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동서로 긴 불규칙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 산봉형(蒜峯形) 산성이다. 성위를 중심으로 쥘 성의 둘레는 약 460여 m에 이른다.

산성은 동서의 양 끝 부분만을 석축하였으며, 나머지 구간은 모두 삭토(削土)한 토축성벽으로 되어 있다. 이는 양쪽 능선부를 제외한 북쪽과 남쪽은 경사가 매우 급하여 삭토하여 외험(外險)하게 하는 정도의 성벽으로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서 양쪽 끝의 석축부는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지(門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현재 모두 붕괴되어 문지의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사진 21] 화학리토성 모습

남쪽 성벽에는 토루(土壘)의 흔적이 완전한데, 폭은 5m로서 성벽 아래에도 2~4단의 토단이 있어 이것이 차단벽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북쪽 성벽은 불확실하지만 산 능선에 편평하게 내탁한 토루가 남아 있어 약 3~5m의 내환도를 이루고 있다.

성안 전체가 평평한 대지로 장대지(將臺址) 혹은 망대지(望臺址)와 같은 건물지는 별도로 시설하지 않은 듯 하며, 다만 성의 서쪽으로 좀더 넓은 평탄지가 있어 이곳이 건물지로 추정된다.

## 18. 산계리토성(山桂里土城)

청성면 산계리(山桂里) 20-1번지 속칭 ‘성안’ 부락의 낮은 구릉지에 있는 토성으로 일명 산계리토성이라 불리워진다.

토성은 청성면 소재지의 동쪽에 위치한 야산에 축성하였다. 동·남쪽에 보청천을 낀 낮은 구릉 위에 동고서저의 지형에 따라 동·남쪽의 강안을 방어하기 위해 쌓은 성으로 고지(高地)인 동부에 내성을 갖춘 이중성이다. 석축성이라는 문헌기록과는 달리 이 성은 토축성이었음이 분명하다. 규모는 실측결과 337보 또는 2,901척이라는 기록보다는 좀더 큰 약 1.1km의 규모로 비교적 대규모에 속하는 토루(土壘)가 지세를 따라 굴곡을 이루며 남아 있다.

성안은 현재 대부분 경작지로 변하여 동벽은 대부분 붕괴되었으며, 북동과 북서만이 비교적 성벽이 잘 남아 있다. 6개소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치성은 거의 원형을 잃고 있다. 이 성의 북동쪽 성벽 중간지점이 가장 높아 장대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 대지에서 남서쪽으로 119m에 이르는 성벽을 쌓아 내성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그 나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성벽의 안팎은 고저 차가 심하여 지대가 높은 동쪽에 내성을 이루었을 가능성

이 있다. 또 밖의 강안(江岸) 쪽은 단애를 이루고 있는 아주 험한 지세여서 이 성의 방어방향은 주로 강안 쪽으로 추정된다.

축성방법은 석축 위에 진흙과 마사토를 다져 올린 판축(版築)한 토성이며, 동쪽 끝 무너진 부분에서 일부 석축한 흔적이 보인다. 모서리마다 치성을 시설하였다.

문지로는 우물터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서문지와 북·남·서쪽의 만곡된 부분에 있으며, 문지의 형태는 서문의 경우 V자형의 옹성으로 되어 있고 양측의 성벽은 특히 험하여 이 양측 성벽 사이로 약 40여m를 들어가야 문에 이를 수 있어 방어에 용이하게 시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지는 문헌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단지 정문으로 보이는 서문지 안쪽의 민가 부근과 그 남쪽 언덕 위의 중간쯤에 있는 평지가 건물터로 추정된다.

성안에서는 삼국시기의 그릇과 기와조각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 이곳이 서기 486년에 삼년산성과 함께 수리된 굴산성(屈山城 : 청산의 신라 때 고을 이름)<sup>26)</sup>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에 보이는 이성산성(已城山城)<sup>27)</sup>이 곧 이 성터를 말하는 곳으로 추정되며, 이성산성은 둘레가 2,091척이고 높이가 8척이며, 성안에 우물이 있고, 조선시대 전기까지는 군창이 있었다고 하였는데, 다만 석축이라 기록된 것과 달리 현재 석축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인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옥천군에서

番號 6. 城址. 靑西面 桂山里. 私有. 城名不詳임. 山城里部落의 東方 約四十間 小丘上에 있는 土築의 山城으로 西北의 部分은 二重으로 築造되었고, 土壘는 겨우 隆起된 상태처럼 보임. 周圍 約600間. 文獻備考에 「已城山城 在西八里 石築 內有井一」이라 記載된 것에 相當할 것으로 여겨짐.<sup>28)</sup>

이라 하였다.

## 19. 저점산성(猪岾山城)

저점사성은 청성면 산계리 계하마을 뒷산인 해발 313m의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두 개의 산봉우리를 끼고 돌면서 남서 사면의 일부와 남서쪽 계곡을 둘러싸고 있는 사모봉형(紗帽峯形)의 석축산성이다. 전체적인 지세는 보은의 삼년산성과 비슷하다. 축성시기에 대

26) 『三國史記』 卷3 新羅本紀 炤知麻立干 8年.

27) 『世宗實錄』 地理志 忠淸道 靑山縣.

『新增東國輿地勝覽』 靑山縣 城郭.

『輿地圖書』 忠淸道 靑山縣 古蹟.

『忠淸道邑誌』 忠淸道 靑山縣 古蹟.

『湖西邑誌』 忠淸道 靑山縣 古蹟.

28)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 忠淸北道 沃川郡.

한 문헌기록은 없고 조선시대의 각종 지리지에 ‘산성은 이미 성의 기능을 상실한 폐성으로, 위치는 청산현의 서쪽 9리에 있으며, 둘레는 2,057척으로 성안에는 우물이 1곳 있다’<sup>29)</sup>라 기록되어 있다.

이 산성에서 산계리토성까지는 불과 1km 내외의 거리를 두고 있으며, 산계리토성이 강을 낀 구릉지에 토성을 이루고 있고, 저점산성은 비교적 험준한 산의 정상부를 석축으로 둘러 쌓은 산성으로 보아 이 두 성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산정상부에는 북쪽으로 이어지는 능선부에 4단으로 된 석축시설이 남아 있다. 이것은 하동 고소성(姑蘇城)의 북쪽 발굴된 성벽과 유사하며,<sup>30)</sup> 체성벽보다 외곽의 석축이 영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성벽을 축성한 후 외곽석축을 쌓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석축은 바로 아래 북문으로 추정되는 문지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시설은 북쪽의 산 능선을 보강하기 위한 각루나 장대와 같은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성안은 물론 남쪽의 보청천과 북동쪽의 보은—영동간 국도, 청산면 일대의 평야, 그리고 멀리 옥천 방면과 보은 방면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임을 알 수 있다.

동쪽과 남쪽의 성벽은 대부분 무너져 내려 그 형적만이 남아 있을 뿐이며, 서쪽성벽은 비교적 성벽의 아랫부분이 잘 남아 있다. 성돌은 주변의 암반에서 채석한 것으로 장방형으로 치석한 후 수평 눈줄 맞추기 하여 축성하였으며, 중간 중간에 켜기돌을 사용하였다.



[사진 22] 저점산성 성벽 모습

문지로 추정되는 곳은 북쪽의 가장 높은 봉우리 서쪽 계곡부의 북문지와 계하 마을에서 올라오는 성의 남서쪽 계곡에 남문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북문지는 뚜렷한 형적을 남기고 있으나 남문지는 현재 그 형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추정 남문지 안쪽으로는 평탄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곳이 산성내의 유일한 평지이며, 계곡을 가로막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 우물터와 저수시설 및 수구지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산성에 대한 일제강점기의 조사기록인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옥천군에서는

番號 3. 城址. 靑西面 桂山里. 私有. 城名不詳임. 山城里部落의 西北方約五町에 있는 石築의 山城인데, 거의 崩壞되고 周圍 約500間. 文獻備考에 「猪岾城 在西九里 石築 內有井 一」로 記錄된 것에 相當한 것으로 여겨짐.<sup>31)</sup>

29) 『新增東國輿地勝覽』靑山縣 古蹟.

『輿地圖書』忠淸道 靑山縣 古蹟.

『忠淸道邑誌』忠淸道 靑山縣 古蹟.

30) 東亞大學校 博物館, 2000, 『河東 姑蘇城』.

31) 朝鮮總督府,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忠淸北道 沃川郡.

이라 하였다.

### Ⅲ. 옥천지역 산성과 보루 수습 유물의 양상

옥천군 관내 산성으로서 조사된 여러 유적에서 수습되는 유물의 대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마성산성(馬城山城)

토기편으로는 황갈색을 띠는 연질소성(軟質燒成)의 토기편과 밝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소성의 토기편으로 표면에 종집선문(縱集線文)이 시문된 백제계 토기편이 수습된다.

#### 2. 동평산성(東坪山城)

토기편으로 회색을 띠는 경질소성의 경부(頸部) 표면에 5줄의 단선파상문(單線波狀文)이 시문된 것을 비롯하여, 짙은 회청색을 띠는 경질소성의 평저 토기편으로, 저부와 동체하부의 일부가 남아 있어 동체는 사선으로 벌어져 올라가는 형태이며 표면과 내면에 각각 격자문과 선문이 시문되고 회전물손질이 가해져 대부분 지워진 상태의 것이 있다. 회청색을 띠는 경질 동체편의 표면에 사집선문이 시문되고 물손질이 가해진 것이 있다. 석제소호로 표면에는 4줄의 횡침선이 돌려진 것도 있다.

기와편은 짙은 회흑색을 띠는 경질소성의 암키와편으로 배면에는 선문이 시문되고, 그 위로 물손질이 가해지고, 이면에는 포목흔(布目痕)과 도구를 이용해 사선(斜線)방향으로 쓸어 놓은 흔적이 있는 것이 있다.

#### 3. 삼성산성(三城山城)

신라 고배편으로 저부와 대각편이 발견된다. 대각에는 방형으로 보이는 투창(透窓)이 밖에서 안쪽으로 사선방향으로 뚫려 있다. 또 격자문이 시문된 토기편도 있다.

#### 4. 삼양리토성(三陽里土城)

토기편은 무문토기 조각으로부터 연질의 선문이 시문된 토기편, 경질의 회청색 토기편과 회백색의 니질태토에 선문이 시문된 토기편이 수습된다.

#### 5. 서산성(西山城)

유물이 가장 많이 수습된다.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선조문 및 격자문 토기편, 통일신라 하대와 고려에 걸치는 시기의 토기편, 선조문과 승석문이 시문된 기와편이 사격자문 및 굽은어골문 계통의 기와편과 함께 수습된다. 와통을 감싼 통보의 무늬가 가는 포문, 승석과 갈대발을 엮은 것 등 청주 부모산성 등지의 나제 국경선상의 산성들에서 나타나는 기와편들의 양상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모골 와통을 묶었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이면에 남은 것들도 수습된다.

## 6. 계현성(鷄峴城)

전체적으로 토기편과 기와의 양상이 서산성과 비슷하여 모골 아통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기와도 있다. 승석문을 통발로 묶은 흔적이 뚜렷한 기와들이 많다.

## 7. 환산성(環山城)

토기편으로 대부분 선조문이 시문된 것들이 주로 수습된다.

## 8. 구건리산성(九巾里山城)

갈색을 띠는 연질소성의 토기 완(宛)편과 니질 태토의 토기편 및 회색 내지 회청색 경질 집선선조문 토기편, 편병편 등이 수습된다.

## 9. 이원리산성(二院里山城)

토기 및 기와편이 다량으로 수습된다. 연질과 경질 소성의 집선문 토기편들과 고배편, 어망추, 파수편 등 다양하며, 기와편의 양상은 서산성과 계현산성, 화학리산성 등과 유사하다.

## 10. 화학리산성(禾鶴里山城)

토기편은 완류, 뚜껑 혹은 반류, 호와 옹의 파편, 대족편 등이 많이 수습된다. 통일신라 후기 이후의 대응편도 있다. 기와류는 앞의 서산성과 이원리산성과 유사한 것들이 많다. 성 내에서 벽돌이 수습되었는데, 적황색의 연질로 길이 31.4cm, 너비 19.7cm, 두께 10~11.2cm의 크기이다.

## 11. 산계리토성(山桂里土城)

성내에서 무문토기 시대 이래의 토기편이 많이 발견되고, 경질 신라토기편과 기와들도 쉽게 검출된다.

이러한 양상은 이들 산성들이 가지는 성격의 아주 작은 일단을 알려준다고 생각된다. 즉, 신라 특유의 기종인 투창 대각을 가진 것들이 나오고, 기와가 많이 수습되는(표토에서 쉽게 기와를 수습할 수 있는) 산성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다. 대부분의 산성에서는 5세기나 6세기에 일반화된 종집선문, 내지 의사승석문이라 불리는 문양이 시문된 토기편들이 주로 수습된다. 통일신라 하대와 고려시기로 편년되는 것들도 포함된 곳이 있다.

옥천 중심부에서는 서산성에서 유물이 가장 흔히 검출된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계현성, 이원리산성, 화학리산성 등에서 기와와 토기편을 쉽게 검출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삼국-통일신라-고려초기로 이어지는 시기의 지방 행정 중심지와 일단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우선 이원리산성의 경우 신라의 소리산현(所利山縣), 화학리산성의 경우 신라의 아동혜현(阿冬兮), 산계리토성은 굴산현(屈山縣)의 치소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될 수 있는 곳이다.

현재의 옥천군은 조선시대의 옥천군에 청산현을 더하고 양산현 지역을 영동군에 이관한 것이지만, 고려시대 전기인 현종 9년(1018)에 상주(尙州) 소속으로부터 경산부(京山府)에 이속(移屬)되었다가 인종 21년(1143) 현령(縣令)이 설치되었으나, 명종(明宗) 12년(1182) 관호가 없어진 바 있었다. 후기인 충선왕 5년(1313)에 지옥주사(知沃州事)로 승격되면서 같이 경산부에 소속되었던 이산(利山)·안읍(安邑)·양산(陽山)의 세 현을 속현(屬縣)으로 둔 것이었다.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에 관성군(管城郡)이 될 때부터 이들 세 현이 관할 아래(領縣)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32)</sup> 본디 신라의 古尸山이라 한 것은 김유신 열전에서 보이는 고리산(古利山)과 같이 본디 이곳의 이름이 우리말 고리산, 혹은 고리메나 고리피이었을 것으로 추측케 한다. 그리고 지금의 고리산을 한자로 환산(環山)이라 표기하고 있는 것과 신라본기에서 관산성(管山城)이라 하였고, 그것이 훗날 관성군(管城郡)이 된 것도 비슷한 지명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사료에 보이는 古尸山=古利山, 管山城⇒管城郡으로 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현재의 옥천읍을 중심으로 보면 군북면과 군서면을 나누는 경계선을 이룬 산상에 산성과 보루들이 배치되어 있다. 즉, 토루로 된 삼양리 토성을 중심으로 그 북쪽과 서쪽에 보이는 산 능선을 따라 매우 조밀하게 분포된 이들 산성과 보루들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 다음으로는 서화천을 건넌 대전광역시 방면으로 산성과 보루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 가장 높이 솟은 환산에 역시 산성과 보루가 밀집 분포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들 가운데 규모에 있어서나 출토 유물 양상으로 볼 때 삼양리 토성 북서쪽의 서산성과 서쪽의 삼성산성이 가장 요충이 되는 삼거리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서화천을 따라, 혹은 사목재를 넘는 옛 길을 막아서는 최후 지점을 이룬다.

32) 『世宗實錄』地理志 忠淸道 沃川郡.

이러한 산성과 보루의 배치상태는 관산성이 신라로서는 가장 서쪽의 국경을 형성하여 백제와 대치한 지역임을 쉽게 짐작토록 한다. 반면에 백제로서는 대전광역시의 동편으로 북쪽의 계족산에서 남쪽의 식장산에 이르는 산줄기를 따라 조밀하게 배치된 산성과 보루들이 존재하여 있는 점에서 동쪽 경계선을 이루며, 이 지역은 옛 회덕현(懷德縣), 신라통일기의 비풍군(比豐郡), 백제의 우술군(雨述郡) 내지 우술성의 지역이다.

옥천 관내의 열을 이룬 산성과 보루들, 대전광역시의 앞에서 언급한 산성과 보루군 사이는 고리산 줄기의 여러 보루들과 식장산 동남쪽의 옥천군 관내 성터와 보루들뿐만 아니라 옛 청주목 소속이었던 주안향(朱岸鄉)의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도 산성과 보루가 존재하고 있다. 만약 현재의 옥천군 군북면 자모리 쪽을 탄현(炭峴), 혹은 침현(沉峴)이라고 볼 경우 『삼국사기』에서는 백제 동성왕 23년(501) 7월에 탄현에 설책(設柵)하여 신라에 대비하였다는 내용<sup>33)</sup>과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보다 앞서서 신라는 이미 470년에 삼년산성을 축조하고,<sup>34)</sup> 486년 삼년산성과 굴산성을 수리하고 있어서<sup>35)</sup> 이미 금강 상류지역을 지배하고 견고한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백제에서 신라와의 국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방어시설 설치가 있었다면, 신라에서도 다시 그에 대응하는 국경 방어시설의 설치를 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라의 금강 상류지역에 대한 확실한 지배가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백제가 그 요충 교통로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망을 구축하였다면, 동성왕의 시해사건 이후 오히려 신라는 더욱 빠른 속도로 이 지역에 대한 방어망의 정비를 이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초기의 옥천지역에서 그 치소로서의 토성을 축조한 대상이 삼양동토성이라 할지라도, 이후 삼양리토성을 보호하기 위한 외곽 방어망으로서의 산줄기를 따라 방어선을 이룬 석축 산성의 축조는 서산성과 삼성산성 등을 최후 방어선으로 하고, 그 서북 방향으로 작은 규모의 산성과 보루를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방어망의 구축을 이루어 내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최근 옥천읍 금구리에서는 아주 좁은 범위이기는 하지만 의미 있는 발굴조사가 있었다. 이보다 앞서 이미 옥천지역에서는 삼거리 바로 북쪽의 옥각리에서 석곽분이 조사된바 있었다. 그러나 출토 유물에서 편년자료가 거의 없어서인지 백제고분일 것으로 추측되었다.<sup>36)</sup> 반면 이번의 금구리에서는 황구식 계열의 석곽묘들이 주류를 이룬 신라 무덤들이 조사되었다. 바로 삼성산성의 남쪽 기슭 아래로 동쪽으로 삼양리토성이 직선거리 500m도 채 안 되는 거리이다. 여기서 나온 신라 유물들은 대체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것들이며,<sup>37)</sup> 이러한 무덤을 만든 집단이 이곳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5세기 후반과 6세기 전반에 이미 신라 토기를 사용하는 집단이 이곳에 정착하여 2~3세대를 살고 있었던 점이다. 그들이 백제계 주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사용하다 부장한 유물이 신라계 일색인 것은 최소한 이 지역의 집단이 유통경제에서 신라에 소속된 것이

33) 『三國史記』 卷 26 百濟本紀 4 東城王 23年 7月.

34) 『三國史記』 卷 3 新羅本紀 3 慈悲麻立干 13年.

35) 『三國史記』 卷 3 新羅本紀 3 炤知麻立干 8年.

36) 中央文化財研究院, 2002, 『沃川 玉覺里遺跡』.

37) 중원문화재연구원, 2008, 『옥천군 농산물집산단지 예정부지내 문화유적 연장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라는 점이다.

이곳보다 서쪽인 서화천의 상류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에서 조사된 단각고배를 출토하는 신라 석곽묘<sup>38)</sup>들은 이미 6세기 중엽 이후에 신라가 옥천을 넘어 서화천을 따라 금산, 진산지역으로 가는 길목을 장악하고 살았음을 알려준 바 있었다. 이런 점에서 당초 옥천지역은 백제 영역이었다가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자 백제가 다시 탈환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하고 추측하던 역사적 실체는 성립되기 어렵게 되었다. 즉, 서기 554년 이전 적어도 50여년 이전에 이미 옥천읍 지역은 신라에 소속되어 뚜렷한 신라의 영역이었던 점, 서기 554년을 기점으로 신라의 영역은 보다 확대되어 금산 장대리나 대전 주산동처럼 신라고분이 조영되는 곳으로 변화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보다 설득력을 가지게 되었다. 일찍이 김정호는 『大東地志』에서 충청도의 역사적 영역 변천에 대해 본래 마한의 영역이었다가 서한(西漢;前漢) 말기에 백제와 신라가 나누어서 가졌다고 하고 옥천·보은·영동·황간·청산·회인·문의는 본래 신라가 개척한 바라고 하였다.<sup>39)</sup>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서 아직 백제와 관련된 유적이 조사되지 못한 바도 있으나, 일부 알려진 유적들이 거의 신라계 유적 일색인 점은 주목된다.

#### IV. 옛 교통로와 산성 및 보루의 배치관계

##### 1. 지리지에 보이는 옛 교통로

역대 지리지에서 옥천을 경유하는 교통로를 비교적 상세히 나타낸 것으로는 조선 초기의 『世宗實錄』 지리지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 역원(驛院)을 기록한 것이 있다.<sup>40)</sup> 이 기록은 한양 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통로로서 특징 지워진 것이다. 옥천 지역의 경우에는 역이 5 개소가 있었다.

- 증약역(增若驛) - 현재의 옥천군 군북면 증약리로서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군의 서쪽 18리의 거리라 하였다.
- 가화역(嘉禾驛) - 신역(新驛)이었다가 『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가화역(嘉和驛)이라 하여, 군의 서쪽 3리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의 옥천읍 가화리이다.
- 화인역(化仁驛) - 화인역(和仁驛)이라 하던 것으로, 안읍현(安邑縣)의 남쪽 5리에 있다고 하였으며, 화인진(化仁津)과 함께 수륙의 요충이었던 듯하다.
- 순양역(順陽驛) - 순량역(順良驛)이라 하던 것으로 옛 옥천의 소속이던 양산현(陽山縣) 서쪽 4리에 있었다 하며, 지금의 영동군 양산면에 있었다.
- 토과역(土坡驛) - 토현역(土現驛)이라 하던 것으로 이산현(利山縣) 서쪽 2리에 있다

38) 崔秉紘 外, 1992, 『錦山 場垈里 古墳群』, 漢南大學校 博物館.

39) 『大東地志』 卷5 忠淸道.

40) 『世宗實錄』 地理志 忠淸道 沃川郡.

『新增東國輿地勝覽』 忠淸道 沃川郡 驛院.

고 하였다.

이들 역과 관련하여 숙박시설인 원(院)이 7개소가 운영되었다.

- 증약원(增若院) - 증약역의 남쪽
- 화인원(化仁院) - 군의 동쪽 26리에 있는 화인진의 강안
- 금천원(金川院) - 군의 남쪽 5리라 하여 지금의 군서면 금산리
- 우현원(牛峴院) - 이산현의 서쪽
- 율현원(栗峴院) - 이산현의 남쪽
- 덕수원(德水院) - 양산현의 남쪽
- 적등원(赤登院) - 군의 남쪽 40리에 있는 적등진 강안

이러한 역원의 실태로 보아 당시의 교통로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증약-옥천-이원-양산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주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서 방향으로서는 금강의 동쪽으로 안읍현을 지나는 통로로서 화인진·적등진을 통해 강을 건너 영동 방면으로, 혹은 황간으로 가서 추풍령으로 통하는 것이 대로(大路)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통로는 관산성(管山城) 전투와 연관시키면, 혹시 신주(新州)에서 관산성에 이르는 교통로로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다만, 백제의 동쪽 국경이 오늘날의 대전·충청북도 청주와 청원군·보은군 회북과 회남면 등지에까지 이르렀다면(삼국사기 지리지에서 백제 땅으로 된 부분), 이 통로는 중간에서 동서 방향의 교통로와 교차하게 된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르러 교통로는 장시(場市)의 발달과 함께 더욱 세분하여 이용되었다고 여겨진다. 『輿地圖書』의 경우 옥천을 중심한 교통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다.

◎ 동쪽에서 오는 대로(大路)가 4개이다.

○ 보은현의 경계가 관문에서 동쪽으로 45리 거리인 길은, 두음치(斗音峙)를 넘어 15리를 와서 안읍창참(安邑倉站)에 닿는다.

○ 보은현 경계가 관문으로부터 동북 방향으로 47리 거리인 길은, 문치(文峙)를 넘는 길로 10리를 와서 안읍창참에 이른다.

○ 회인현의 경계가 관문에서부터 동북쪽으로 40리 거리인 길은, 장선치(長先峙)를 넘어 10리를 와서 안읍창참에 이른다.

○ 보은현의 경계가 관문으로부터 동쪽으로 35리 거리인 길은, 싸리재(柎嶺)를 넘는다.

○ 청산현 경계가 관문에서 40리 거리인 길은, 안치(鞍峙)를 넘어 10리를 와서 싸리재 길과 안남 땅에서 합쳐져 화인역 마을을 지나 안읍창참의 길과 합해져서 화인진(化仁津)을 건너 군의 동쪽 땅에서 관문에 도달한다.

◎ 남쪽에서 오는 대로가 3개이다.

○ 전라도 무주 경계까지 관문에서 남쪽 80리 길은 백화산에서 고개를 넘는다.

○ 무주부 경계까지 관문에서 80리 되는 길은 백화산 열호치(列狐峙)를 넘어와 양남(陽南) 땅에서 합쳐져 호탄나루(虎灘津)를 건너와 이산창참(利山倉站)에 다다른다.

○ 영동현 경계까지 동남쪽으로 관문에서 46리 거리의 길은 마편목(馬鞭項)을 넘어 적등진(赤登津)을 건너와 이산창참에 이르러서는 무주에서 모는 길과 합쳐지고, 또 한길은 나뉘어 우치(牛峙)를 넘어 증약역(增若驛)을 향한다. 또 한 길은 구두음치(九斗音峙)를 넘어 길이 곧바로 관문에 다다라 동쪽대로와 합쳐져서 5리를 가면 서정자(西亭子) 다리에서 우치로(牛峙路)와 합쳐지며, 증약참에 이른 후 마달치(馬達峙)를 넘어 길이 3개로 나뉜다.

하나는 문의(文義)로 향하고, 또 하나는 회덕(懷德)으로 향하며, 다른 한길은 진잠(鎭岑)으로 향한다.

○ 양내면으로의 길은 전라도 금산군 경계까지 관문에서 남쪽으로 60리 되는 갈것로(加乙去尔路)로, 호탄진 물 아래 양산창참(陽山倉站)을 지나 곧장 영동현으로 간다.

◎ 북쪽으로 소로(小路) 하나가 있다.

○ 회인현의 경계까지 관문에서 30리 거리이며, 가산(佳山)을 지나와 읍내에 도달한다.

◎ 서쪽으로 소로(小路) 2개가 있다.

○ 전라도 진산군의 경계까지 관문에서 25리의 거리인데, 와서 읍내에 이르며,

○ 진산군 경계까지 20리의 거리의 것은 사목령(土目嶺)을 넘어와 읍내에 이른다.<sup>41)</sup>

이러한 설명을 『輿地圖書』에 있는 「옥천군지도」에 그려진 도로와 비교하여 보면,

① 동쪽 대로는 모두 화인진(化仁津)을 건너며,

② 남쪽 길은 옥천에서 이산까지 두 개의 길, 이산에서 적등진(赤登津)을 건너는 길과 호탄진(虎灘津)을 건너는 길이 나뉘며,

③ 서쪽 길은 진산 방면에서 서대산 북쪽으로 서화천을 따라 나 있고,

④ 북쪽 길은 증약역(增若驛)을 지나 북쪽(문의, 청주 방면)과 서쪽(회덕 방면)으로 갈라진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주요한 도로는 일단 관아와 관아를 연결하는 도로가 중심이 되었으며, 소로(小路)는 험하지만 거리가 짧은 직로(直路)에 해당되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금강의 본류에 화인진·적등진·호탄진의 세 나무가 주요한 통로이며, 상류로 가면서 여울이 늘어나는 강의 성격이다.

한편 소로(小路) 가운데서 북쪽으로의 길인 가산(佳山)을 통하는 길은 가까우나 군사 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이라는 점에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교통의 요충은 남북으로 통하는 역로(驛路)로서의 대로와 동서 방향으로 이어진 길들이다. 남북으로는 마달령(馬達嶺), 혹은 마달치(馬達峙)—증약역(增若驛)—가화역(嘉禾驛)—이산창참(利山倉站)—밤고개(栗峴)—양산창참(陽山倉站)과 순양역(順陽驛)—무주(茂朱)로 통하는 길이 중심이 되어 있으며, 이 길의 북쪽에서는 북으로 이어지는 길이 문의(文義)—청주(淸州)—진천(鎭川)을 거쳐 경기도 안성(安城)과 이천·여주로 통하였다. 동서의 교통로는 보은—옥천—진산, 청산—옥천—진산 등의 길이 있었다.

41) 『輿地圖書』 忠淸道 沃川郡 道路.

서쪽으로는 소로 2개가 있어서 하나는 관문에서 서정자 다리를 지나 군서면을 거쳐 전라도 진산경계까지 25리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관문에서 가화역을 지나 사목치(土目峙)를 경유하는 길로 20리 구간이었다.

이러한 교통로의 특징은 첫째로 서울과 통하는 남북 방향의 길은 모두 대로(大路)라 하였으며, 둘째로 동쪽의 보은·회인·청산으로 통하는 길도 모두 대로(大路)로 되어 있고, 셋째로는 옥천에서 서쪽으로 전라도 금산이나 진산으로 통하는 길은 모두 소로(小路)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19세기 후반의 『大東地志』 옥천 산수(山水)의 영로(嶺路)에서,

문치(文峙)—동북쪽 40리, 보은 경계  
장선치(長先峙)—북쪽 35리, 회인 경계  
마안항(馬鞍項)—동남 20리, 청산 가는 길  
원치(遠峙)—서북쪽 25리, 회덕 가는 길  
열호치(列狐峙)—남쪽 70리 무주 가는 길  
안치(鞍峙)—동쪽 40리, 청산 경계  
마달치(馬達峙)—동북 40리.  
뉴치(柎峙)—동쪽 40리, 청산 경계<sup>42)</sup>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웃 고을들과의 거리에 대해서는,

청산까지 50리, 영동까지 45리, 무주 100리, 회덕까지 30리, 청주소속 주안향까지 32리, 회인까지 15리, 보은까지 50리<sup>43)</sup>

등으로 나타나 있다. 강역에 대한 이웃 고을의 기록으로는 회인에서 옥천은 30리, 보은 15리, 보은에서 옥천과 청산이 모두 30리, 청주까지 30리, 회덕에서 옥천 20리로 나타나 있고, 청산에서는 영동과 옥천이 30리, 옥천 20리, 보은 25리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거리 관계는 최종적으로 『靑丘圖』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옥천의 동쪽 교통의 요지는 수륙(水陸) 모두 화인역(化仁驛)과 화인진(化仁津)이 중심이 되어 있다.

② 옥천의 서쪽으로는 물길을 따라 난 길이 서화천을 따라가는 길로서, 서화천에 대하여 『대동지지』에서 “진산(珍山)의 만인산(萬仞山)에서 발원하여 동북쪽으로 흘러 서대산(西臺山)을 경유하여 삼성산(三聖山)의 서쪽에서 화인강(化仁江)으로 들어간다”고 하였으므로, 자연적인 지형으로 이루어진 길로서 이용되었던 것이 옥천—진산 사이의 길이었다.

③ 옥천의 서북쪽으로는 『대동지지』에 원치(遠峙)가 기록되어 회덕현 사이의 길로 되어

42) 『大東地志』 忠淸道 沃川 山水 嶺路.

43) 『大東地志』 忠淸道 疆域.



[삽도 1] 옥천군 주변 고지도(『大東輿地圖』)

있는 바, 현재의 마달치보다 서쪽의 자모리 방면의 고개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오늘날의 부여—옥천에 이르는 길은 부여—노성, 혹은 석성—논산, 혹은 연산—진잠, 혹은 진산—옥천

에 이르는 길이 되며, 이 경우 옥천에서 서쪽으로는 진산 경유 대둔산 북쪽을 한삼천을 따라 황산벌로 나가는 길과, 원치(遠峙)를 넘거나 서화천 유역에서 대전 동남방의 고개를 넘어 진잠을 거쳐 황산벌에 이르는 두 길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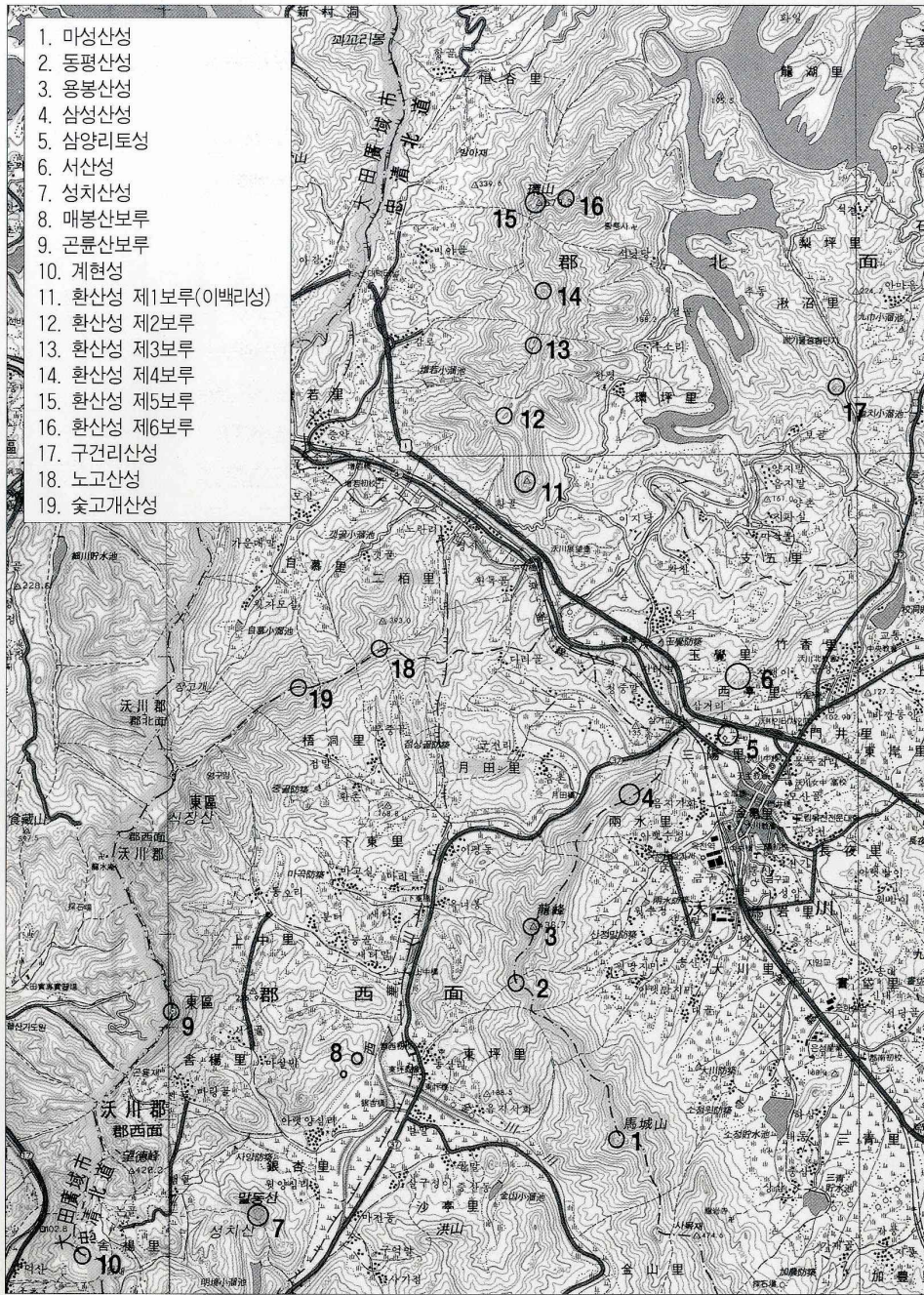
⑤ 위의 두 길은 모두 옥천의 삼거리에서 만나거나, 진산에서 옥천으로 직행할 경우 사목령(土目嶺)을 넘어 옥천에 이르게 된다.

⑥ 옥천 지역은 이 경우 군서면과 군북면 지역이 이 교통로의 연변에 있게 된다.

## 2. 산성과 보루의 분포로 본 옥천 서북 지역

옥천군 옥천읍과 군서면·군북면 지역에는 여러 곳에 성보(城堡)가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축성의 구체적인 연대를 모르는 것들이며, 조선시대의 축성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고려시대의 어떤 전쟁 기록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고대의 소규모 성보(城堡)의 유형에 속한다. 삼국시대 옥천 지역보다 신라 왕경 방면으로 가까운 곳인 오늘날의 보은과 청산·영동군 지역에도 크고 작은 성터들이 분포하여 있다. 이 가운데 삼국사기에 기록을 보이는 것으로는 삼년산성(三年山城)과 굴산성(屈山城)이 있다.

삼년산성은 둘레가 1,680m나 되는 견고한 석축 성벽을 자랑하며, 삼년산군의 치소(治所)였다고 믿어지고 있다. 대략 삼국시대의 군(郡)이나 현(縣)의 소재지에 축조된 성들은 매우 높은 곳에 있었던 것보다는 주변에 넓은 들판이 전개된 곳에 위치하여 있다. 군현의 성은 크기는 둘레가 1.5km가 넘는 것도 있으나, 군(郡)의 것이 대략 1km 내외, 현(縣)의 것은 약 50



[삽도 2] 옥천 서부 지역 산성 배치도

0~700m 정도의 규모로 대략 사모봉형(紗帽峯形)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양상으로 본다면 관산성으로 비정할 수 있는 성으로는 어떤 성이 있을까? 매우 흥미롭고도 복잡하다. 우선, 옥천읍과 군서면·군북면에 소재한 성터들 가운데 규모에 있어서 군(郡)의 치소(治所)로서 경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는 삼양동토성·서산성·삼성산성(월전리산성)의 세 곳이 있다. 현(縣)의 치소로서는 옛 이산현(利山縣), 혹은 소리산현(所利山縣)의 치소로서는 이원리산성으로 둘레 650m 남짓하며, 안읍현(安邑縣), 혹은 아동혜현(阿冬

兮縣)의 치소로서는 화학리산성으로 둘레가 680m 남짓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현의 치소가 600~700m의 규모로 파악된다면 그보다 상위 행정단위로서의 군(郡)의 치소는 이보다 큰 규모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국경지대에 가까운 곳이라면 견고한 성벽을 가진 성터라야 할 것이다.

옥천읍과 군서면의 좁은 협곡에 위치한 삼양리토성·서산성·삼성산성 등의 세 성터는 모두 옥천 삼거리의 남쪽, 동쪽, 서쪽에 자리하고 있다. 이 세 성터를 중심으로 남서쪽의 마성산 줄기에 분포한 성터들과 서북쪽의 식장산—고리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에 있는 성보(城堡)들은 선(線)을 이루고 있다. 이 두 개의 선 가운데는 서화천이 흐르고 있다.

남북으로 두 줄을 이룬 산줄기 사이는 옛 증약역(增若驛)과 가화역(嘉禾驛)의 사이에 불과한 간격이며, 옥천읍을 서북쪽에서 감싸는 두 산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산줄기에 여러 개의 성보(城堡)가 가까운 간격을 두고 축조된 지역은 한강 북쪽지역의 이른바 고구려(高句麗)의 보루(堡壘)들이 조사된 바가 있으며, 백제와 신라의 국경지역에서는 대전시 동쪽의 계족산과 식장산을 잇는 능선 위에 조밀한 성터가 자리한 것, 논산군 연산면의 남동쪽 능선에 여러 개의 성보가 존재하는 것, 청원군 문의면 지역에 여러 개의 성보가 존재하는 것, 청원군 부용면 지역에 집중적으로 여러 개의 산성들이 분포하는 것, 영동군 일대 산줄기를 따라 조밀하게 성터가 분포하는 것 등이 알려져 있다. 이들 지역은 역사상 경계를 이루거나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 공통되는 역사적 조건으로 알려져 있다.

옥천 지역, 특히 군서면과 군북면 지역에 있어서의 성보의 분포는 대전시 동방 지역의 분포와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대전시 동부지역의 경우에는 북동 방향에서 남남서 방향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로서 보다 동남쪽의 고리산~식장산으로 이어지는 방향의 성보들, 다시 그 동남방으로 마성산 줄기를 이어서 북동 방향에서 남서남 방향으로 이어지는 성보들의 분포보다는 백제의 옛 왕도(王都)에 가까운 방어선을 이루고 있다.

백제의 왕도(王都)인 웅진과 사비 방면에서 옥천 지역으로 가는 통로, 다시 말하여 옥천 지역에서 백제의 왕도로 가는 교통로는 조선시대의 교통로보다 훨씬 복잡하게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넘을 수 있는 고개마다 성보(城堡)를 축조하고, 보다 높은 봉우리에도 산성이나 보루를 축조하여 왕래를 차단하였다고 보면, 닭계(鷄峴城)나 곤륜산보루(昆崙山堡壘) 등과, 식장산 동쪽의 이백리산성과 노고산성 및 숲고개 산성 등도 모두 넘어 다니던 고개를 지키기 위한 축조물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보다 규모가 큰 교통로로서 많은 물자의 수송과 인마(人馬)의 통행이 용이한 교통로는 협곡을 이룬 곳에서 좌우에 축성하여 지키는 분포로 나타나 있다. 첫째는 식장산과 고리산 사이의 마달령 동남쪽 골짜기는 고리산의 남쪽 끝과 식장산의 북동쪽 끝자락 봉우리에 보루를 마련하여 내려다볼 수 있으며, 옥천 삼거리의 좁은 협곡은 세 개의 커다란 성이 막아 지킬 수 있도록 성이 축조되어 있는 것이다.

옥천의 서쪽으로는 사목치를 지키는 마성산성과 동평산성, 서화천을 따라 내려오는 길을 산 위에서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산성의 배치로 되어 있다.

## V. 옥천 지역 관산성 관련 유적의 보존 방안

### 1. 시급한 조사와 정비가 필요한 유적

#### ① 성치산성

이번의 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유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성치산성이다. 성치산성은 남쪽의 계곡을 횡단한 부분에 문터와 수구(水口)가 잔존하고 있어서 백제 후기 양식의 석축 성곽들 가운데 가장 전형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필자가 1970년대에 조사할 당시만 하여도 수구가 또렷하게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번의 조사에서 보면, 성내의 물이 배수되지 못하면서 성벽 자체를 밀어내는 현상이 진행되고, 이에 따라 동측의 수구는 거의 붕괴 위험에 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산성은 실측을 동반한 정밀조사를 시행하고, 이어서 성내의 우물, 혹은 연못과 문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거쳐 석축이 잘 남은 부분의 붕괴 부분을 정비하고, 배수가 잘 이루어지도록 정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 예산이 확보될 경우 조사와 발굴에 약 3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정비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성벽이 위치한 곳까지 자동차 접근로가 없으므로, 조사와 정비에는 어려움이 많으나, 대표적인 유적을 보존하기 위하여 시급한 조치가 요망된다.

#### ② 삼양리토성

삼양리 토성은 이 지역 유일의 토성유적으로 이미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성내는 개간되어 과수원이 되기도 하고 민가가 있기도 하다. 이 토성은 옥천의 옛 치소(治所)였을 가능성이 크며, 성내에는 지금도 그릇조각과 기와조각이 나뒹굴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정밀한 측량을 동반한 조사를 하고,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주변에 버스 터미널이 들어서고, 건축을 위한 형질 변경과 각종 시설이 들어서면서 시야를 가리고 있으므로, 하루바삐 이러한 경관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령을 적용하도록 지정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③ 산계리토성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토성은 서기 486년에 축조한 굴산성(屈山城)으로도 비정되는 중요한 성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작지와 주변 민가 등으로 흔적을 자꾸만 잃어가고 있다. 이 성터에 대해서도 실측을 동반한 조사가 필요하며, 충청북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한 후, 일부에 대해서는 성벽 확인을 위한 시굴조사를 거쳐 국가 사적으로 승격 지정 절차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연차적 발굴을 통하여 성격 파악을 하고, 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하므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④ 이원리산성

옥천군 이원면 이원리의 산성은 신라 소리산현(所利山縣) 이래의 치소로서 인정되는 중요한 성터이다. 현재 성내로 진입하는 길을 뚫으면서 성벽이 많이 훼손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 많은 고대의 유물들이 포함된 층위가 훼손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산성에 대해서도 실측을 포함한 성격 파악을 거쳐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훼손된 부분을 중심으로 시굴 및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하고, 더 이상의 훼손을 막아야 한다.

#### ⑤ 화학리산성과 도농리산성

옥천군 아내면 화학리의 산성은 북쪽으로 현리 사이의 능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역시 신라 때의 아동혜현(阿冬兮縣)의 치소로 인정되는 성터이다. 성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성내의 지형이 바뀐 부분도 있다. 많은 유물이 성내 경작지와 농로에 산재하여 있다. 석축의 성벽이 잔존된 부분이 있으며, 성내에 연못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실측을 동반한 정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되, 같은 산줄기에 있는 도농리 산성과 동시에 실시하게 하고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향후 시굴조사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특이한 유구가 나올 경우 국가 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2. 문화재 지정의 필요성

문화유산에 대한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화재 지정을 하여야 함은 모든 성인들이 한결같이 중요하다. 문화재로서의 지정은 성곽들에 대해서는 시·도 지정 기념물(記念物)로의 지정을 우선으로 한다. 이후 역사적 사실과 유적의 성격에 따라 국가 사적(史蹟)으로 승격 지정하여야 한다.

우선 지정 대상으로서 개별적인 성터의 경우에는 삼양리토성·성치산성·서산성·이원리산성·화학리산성과 도농리산성·구건리산성 등의 경우는 개별적인 지정이 필요하다.

다만 마성산 줄기의 마성산성·동평산성·용봉산성 등은 삼성산성(월전리산성)과 함께 묶어서 산 능선 전체를 지정 범위로 하여야 하며, 고리산의 6개 보루도 하나로 묶어서 전체 범위를 지정 구역으로 할 필요가 있다.

식장산에 있는 군북면 자모리와 이백리, 군서면의 오동리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산성인 노고산성과 숲고개산성을 묶어서 한 구역을 삼아 지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전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위치한 곤륜산보루와 계현성(雞峴城)도 옥천군에서 먼저 지정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이들 성터들의 군락에 대하여는 한 묶음단위로 정밀한 실측을 포함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유구에 대한 시굴조사도 실시하여 차츰 명확한 성격을 밝혀야 한다.

### 3. 역사 탐방로의 개발

옥천 서북부 지역의 성터들은 개별, 혹은 같은 능선 위에 여러 개의 산성과 보루가 존재하는 특징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 유명한 탄현(炭峴)과 관련되고, 더욱이 서기 554년의 백제 성왕이 전사한 싸움터로 역사성이 크게 인정된다.

현존하는 성터와 전설이 서린 지역은 북쪽의 고리산에서 시작하여 최남단으로는 보다 멀리 영동군 양산면의 서기 655년 조천성(助川城) 싸움터, 무주군 무풍의 무산성(茂山城) 등과 연계된다.

이 지역의 저명한 학습 및 휴양지는 천태산과 장용산이 있으므로, 이곳과 연계하여 개발할 경우 보다 용이하게 역사 탐방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 잘 보존되고 있는 성터를 여러 사람들이 찾는 곳으로 할 경우 훼손이 급격히 진행될 위험이 있게 된다. 따라서 탐방로의 개설에 앞서서 더 이산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등산로의 정비와 함께 학술적 조사와 정비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옥천군 군서면 지역의 경우 장용산에서~사목재~마성산성, 혹은 삼청리의 용암사~마성산성으로 오르는 길을 정비하고, 마성산성~동평산성~용봉산성~삼성산성을 거쳐 산을 내려와 삼양리토성과 서산성을 보고, 다시 월전리로 가서 구진벼루를 지나 성치산성을 보는 순환 코스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유로는 처음 오르는 길의 경우와 마지막 성치산성을 보는 힘든 코스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위의 코스를 연장하여 월전리에서 숲고개를 올라가서 숲고개산성과 노고산성까지 보고 이백리 갯골로 내려오는 코스가 있다. 이 경우 역시 처음과 끝에서 험한 산을 오르는 힘든 과정이 있다.

세 번째로는 고리산의 여러 보루를 보는 코스로서 이백리의 황골에서 오르는 길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여러 보루를 보고 환곡리 방아재로 내려오거나, 환평리로 내려오는 코스와, 그 반대로 가는 코스를 상징할 수 있다.

이들 코스들은 모두 한 나절에 들 수는 없고 쉬어가며 하루를 소비하는 코스이다. 따라서 점심을 도시락으로 미리 준비하여 적당한 곳에서 점심 식사를 하여야 한다. 군서면 코스는 서화천 냇가에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나, 고리산 코스인 군북면 코스는 산 위에서 아래로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점심을 먹어야 하는 코스가 된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군서면 하동리의 마리들·마고실·분터·능골 지역과 오동리의 무중

골·숫고개, 월전리의 구진벼루 지역, 군북면 이백리의 갯골 등지에 신라와 백제의 전쟁과 관련된 체험장을 마련하여 역사적 추체험을 함으로서 청소년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로 삼고, 이와 관련하여 옛날부터의 석전(石戰)과 같은 놀이를 돌이 아닌 다른 재료로 재현하고, 기마전 등 단체가 참여하여 놀이를 겸하여 협동심을 키울 수 있는 넓은 잔디 운동장을 마련하여 관광 및 학습 체험장·수학 여행 시에 찾아와 한바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곳으로서 각광 받는 곳이 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 VI. 맺음말

역사상 저명한 서기 554년의 백제와 신라의 싸움이 벌어진 관산성(管山城)과 구천(狗川), 고리산(古利山)에 대한 사료는 승리자 측의 기록인 신라의 기록이 자세하여 그 싸움터를 관산성, 혹은 고리산이라 하였고, 패전한 백제의 기록에는 성왕이 50인의 보기(步騎)를 거느리고 밤에 구천(狗川)에 이르러 전사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서기에 설화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마치 무비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따라다니며 촬영한 것과 같이 사실적 기술로 표현되었는데, 싸움터의 표기가 다르게 나타나 있다.

전투가 전개된 양상이 성곽과 보루의 축조와 관련되고, 지역적 범위가 넓거나 길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산성을 조사하고, 아울러 땅이름과 전설로서 관련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하였고, 교통로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첫째로는 이제까지 조사된 성터와 보루터보다 많은 유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식장산 줄기의 숫고개라 불리는 곳과 고리산의 보루 등 최소한 2개의 새로운 유적이 찾아지고, 군서면 은행리에도 보루로 여겨지는 유적이 조사되었다.

둘째로, 과거 옥천군 지역에 존재하였던 신라의 아동혜현(阿冬兮縣)과 소리산현(所利山縣)의 치소가 바로 오늘날의 화학리산성(禾鶴里山城)과 이원리산성(伊院里山城)일 것임을 추론하게 되었으며, 관산성은 옥천읍의 삼양리토성·서산성·삼성산성의 세 성터로 범위를 좁혀 볼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조사된 성터 가운데 군서면의 성터산성(城峙山城)은 문터의 형식이 백제 후기 양식으로 된 것이 확인되므로, 그보다 서쪽의 닭재에 있는 계현성(雞峴城)을 지나 대전의 보문산성(寶文山城) 문터와 구조적으로 같은 계통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터의 양식은 축성 연대가 거의 확실한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의 문터와 동일한 계통의 문구부 외측 모서리의 형태가 곡면(曲面)으로 된 것으로서, 이런 양식의 석축 산성이 성흥산성을 가림성(加林城)으로 보는 입장에 따라, 서기 501년(동성왕 23)에는 이미 성립된 것이라 여겨지고, 같은 해에 축조된 탄현(炭峴)의 책(柵)이 역시 동일한 양식으로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식의 성터가 포함된 옥천군 군북면과 군서면 일대에 분포된 성포(城堡)들은 동성왕 때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많으며, 전설상으로도 뒷받침 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부수적으로 백제의 탄현(炭峴)이 오늘날의 옛 관산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넷째로, 옥천군 옥천읍에서 군서면 월전리로 가는 길목에는 진터벌·염장(殮葬)·말무덤고개·군전·구산·진말랭이·진벌·칼대쟁이·무중골 등의 전쟁과 관련된 지명이 모여 있으며, 동북쪽의 고리산 위에는 여창(餘昌)이 쌓고 있었다고 전해오는 성터와 보루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섯째로 지명에 있어서는 백제 성왕의 전사지로 이미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지적되어온 구진벼루, 혹은 구전·구전벼루가 구진(狗津)이나 구천(狗川)으로 표기될 수 있었을 것을 조심스럽게 문제로 제기하게 되었으며, 숲고개와 개골·갯골·객골로 표현되는 지역도 협곡의 양쪽에 할미성과 할배성의 관계로 설명되는 교통로를 막는 요충으로서 가능성이 있으나, 객관적 의미에서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었다.

여섯째로 고대의 교통로와 전설에서는 교통의 요충이 금강을 동서 방향으로 건너다니던 화인진(化仁津)에서 서쪽으로 옥천을 지나서는 식장산의 북쪽으로 넘는 길과 식장산의 남쪽으로 넘는 고개, 서화천을 따라 서쪽으로 가는 길이 모두 사용되었음이 분명하여지고, 특히 작은 고갯길을 모두 막아 지킬 수 있는 성터와 보루들이 밀집 분포되어 있음에서 백제의 동쪽 경계이자 신라의 서쪽 경계임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는 분포도의 작성이 이루어졌다. 여기서 앞으로 더 확인하여야 될 일이지만, 동북쪽의 고리산에서 식장산을 지나 서남쪽으로 있는 성보들과 군서면의 성터산성 등의 것들은 현재 동남쪽 성벽이 많이 잔존되어 있음과, 그 반대편인 서산성에서 마성산에 이르는 능선상에 위치한 성터들은 반대 방향, 즉 서쪽과 서북쪽 방향으로 마주 대하는 방향의 성벽 잔존부가 많이 남아 있는 구분이 넉넉히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이 산줄기를 따라 백제와 신라의 국경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로 백제의 관산성 침공에서 한때 신라가 불리하였다고 하나, 이 지역은 이미 보다 앞선 시기부터 신라의 세력권에 들어 있었고, 최근 이와 관련된 신라고분군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한다. 즉, 신라는 영토를 지키기 위해 진골 귀족들을 지휘관으로 하는 많은 군사를 배치하였으며, 신주 군주의 군대까지 동원하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 이외에 분명한 한계도 있다. 첫째로는 옥천 지역과 연결되는 금산군 지역과 영동군 지역, 북쪽으로 청원군 지역, 동쪽으로 보은군 지역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고찰하지 못함으로서 가지는 한계이다. 물론 이들 지역의 성터의 분포는 학계에 이미 알려진 바가 있으나, 옥천 지역처럼 다시 정밀한 조사를 한다면 더 많은 성터와 보루들이 찾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외곽지역을 포함하는 조사와 연구는 별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전설과 교통로, 땅이름의 조사와 분포 또한 이들 외곽지역과 함께 행하여질 때 보다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셋째로 개발, 보존이라는 명제를 두고 우선적으로는 역사교육의 현장으로서 탐방로 이외의 방안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탐방로의 경우에도 인근의 논산지역, 영동 마니산과 영국사를 거쳐 양산-무주 통로까지의 연계, 동쪽으로 화인진을 지나 보은 방면으로의 연계, 북으로 옛 대로를 따라 문의 청주 등지로의 연계

문제 등은 숙제로 남는다.